

발간등록번호

2022-KIHF-206



---

#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운영방안 기초연구

---

2022. 12.

---

## 개발진 소개

개발책임자 : 박정윤(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공동개발자 : 김정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송혜림(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 송민선(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이유경(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석사과정)

---

본 보고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연구요약

###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가족의 역동적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 정립의 필요성 증가
  - 한국 가족의 형태와 생활 양상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가족서비스가 필요함. 가족생활 변화에 따라 가족서비스의 방향성 정립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가족생활 관련 기존 조사의 경우, 가족서비스 이용자(이용 가족)의 일상생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가족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연결시킬 수 있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음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활성화 필요
  - 중앙단위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앙단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가족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가족생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의 마련, 데이터 수집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 및 기준 설정, 데이터 활용방안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족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 정립을 위한 자료 제공
  - 가족생활 관련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을 통해 한국 가족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서비스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의 틀을 모색하고자 함
  
-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기능 효율화 방안 제공
  - 수요자 중심의 가족생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을 더욱 견고하게 정립하고자 하며, 전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효율화를 함께 달성하고자 함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의 근거 마련
  - 가족의 다양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근거 중심의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영역 파악
- 조사 기본 사항 및 설문지 문항 개발
-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청 승인 통계, 국책연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체 조사 등을 분석하여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함.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사업 영역별 내용 및 운영현황 파악
- 전문가 조사
  - 연구진에서 개발한 조사 영역 및 설문 문항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가족 관련 전공자 대상으로 질문영역 및 내용 서면조사
- 시범조사 실시 및 분석
  -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한 가족생활 변화 진단 및 전망
  - 가족센터 사업 및 가족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 및 방안 도출

## III. 국내외 가족 관련 조사 현황

### 1. 국내 조사

- 국내 가족생활 관련 선행연구는 총 14개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명, 기관, 기간, 대상, 규모, 영역, 문항 수를 조사하였고 아래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규모	영역	문항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4일	20-30대 성인남녀	1,000명	5	60
2020년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8일	20세 이상 성인	1,100명	4	65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8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1,000명	4	35
코로나 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일	일반 국민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일반 국민 1,500명,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1,000명	3	79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개월	일반 가구 내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민	3,018명	2	46
신증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일	50~69세 국민	4,006명	2	61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2일 (3년 주기)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9,999가구, 14,538명	2	112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11일 (3년 주기)	가구 및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전국 10,971 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	10 (7)	89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	1개월 (1년 주기)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600명	6	33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일 (2년)	19세 이상 64세 이하	9,906가구, 12,710명	6	30

		주기)	여성			
고령화연구 패널조사	한국고용 정보원 고용패널 조사팀	2020년 (2년 주기)	제주도를 제외한 45세 이상 국민	10,254명	7	3,000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2일 (3년 주기)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25,053 다문화 가구	18	12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5개월 (3년 주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	-9개 분야 -20 개 항목	13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3개월 (1년 주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	5,197명	-대 분류 : 10 -중 분류 : 24	82

## 2. 국외 조사

- 국외 가족생활 관련 선행연구는 총 9개 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명, 국가, 기관, 주기, 내용을 조사하였고 아래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음

조사명	국가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내용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미국	보건통계국	2년 (1973년부터)	임신과 출산, 결혼과 동거, 불임, 피임, 가족생활과 모자 건강 등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Series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and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Michigan, Temple University	3년 (1987년부터)	아동기 생활환경, 가족 구성, 관계, 교육, 출산력, 취업 이력, 결혼과 부모됨, 친족 관계, 경제 및 심리적 웰빙 등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미국	Urban Institute, Westat	1997년, 1999년, 2022년	광범위한 아동, 성인, 가족의 웰빙 지수, 사회제도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게로 이관한 연방 정책의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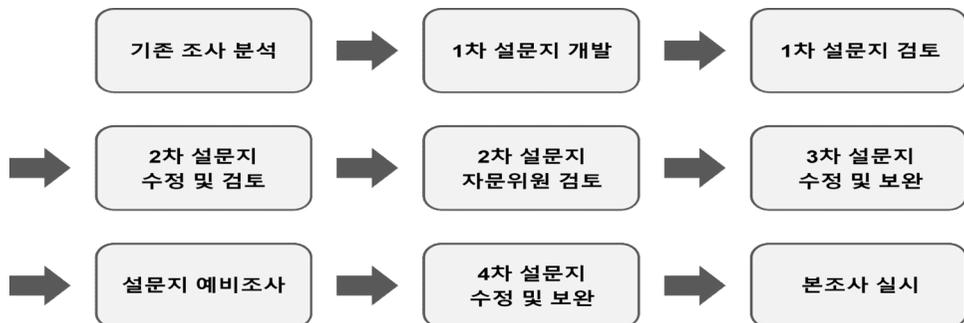
				저소득층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 보건, 소득 안전, 직무 연수, 사회 서비스, 아동 돌봄이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참여 등
American National Family Life Survey	미국	The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21년	가족가치관, 배우자만족도, 사회적 삶이나 사회관계망 만족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부담 등
Family Resource Survey	영국	영국 통계청	매년 (1994년부터)	소득, 주거환경, 가족 영역 (가족 영역의 경우 가족돌봄에 대한 요구와 책임, 장애, 취업, 식품안정성 등)
Families in Australia Survey	호주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매년 2회 (2020년부터)	가족의 관계나 연결, 지지체계, 지역사회에서 일 및 학업 등에 대한 관리
Family and Community Experience Survey	호주	호주 통계청	2022년	지역사회, 이웃과의 상호작용, 온라인 상호작용, 교육, 전반적 신체건강과 웰빙 등
National Survey on Family and Economic Conditions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진	2009년	초기 생애과정에 있어 교육, 취업, 결혼, 가족생활, 자녀 돌봄, 가정관리, 성 역할 등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인도	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	약 5년 (1992년부터)	출산, 유아동 사망률, 가족 계획 실천, 모자 보건, 출산 건강, 영양, 건강과 가족계획 서비스의 활용 등
Malaysian Population and Family Survey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인구가족 발달위원회	10년 (1974년부터)	인구성장, 결혼과 출산, 청소년 행동, 1인가구 및 노후, 가족 상호작용, 건강 실천, 노년의 삶과 청소년의 성, 일-가정 균형, 웰빙, 모유 수유, 이차성 불임 등

#### IV. 연구결과

##### □ 기존 조사 분석

- 가족의 실태, 인식, 수요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최근 보고서 및 국내 주요 조사 검토
- 해당 조사의 문항들을 먼저 2개의 대주제(가족생활실태, 가족서비스 수요)로

- 분류한 후, 가족생활실태 관련 문항들은 다시 5개의 주제(가족관계, 가족형성과 변화,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가족돌봄, 가족가치)로 나누어 살펴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인식 조사 문항들은 2020년 조사부터 영역별 문항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각 연도의 조사 문항이 상이하므로 직접 비교가 불가하고, 해당 조사만이 갖는 차별화된 문항들을 통해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일반 국민에게 기관과 사업에 대해 널리 알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임
  - 가족실태조사 등과 같이 다차년/패널 조사이면서 통계청 승인 조사인 경우, 조사 시점의 주된 이슈나 쟁점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및 가족변화를 반영하여 일-생활 균형,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초점을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각 조사별 대상에 따라 부모부양과 자녀돌봄 문항의 종류나 유형이 상이함. 자녀돌봄의 경우 이용시설과 돌봄시간 관련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 조사들이 다수이며, 배우자 돌봄을 함께 살펴보는 조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가족가치관 문항들 또한 자녀관, 노후관, 성역할 인식 등이 여러 조사들에 산재되어 있고, 조사 시점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항들도 존재함
  -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경험과 빈도, 필요성에 등에 대한 문항들이 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 탐색과 발굴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질문지 개발과정 흐름도

□ 1차 설문지 개발 및 검토

- 연구진 내 회의를 통해 이론적 배경 및 영역 결정
- 영역별 1차 문항 개발 : 9개 영역, 141개 문항
- 연구진 회의를 통한 문항 수정 : 9개 영역, 105개 문항
- 가족과 관련된 현상과 변화를 분석하여 가족서비스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탐색하고 선정 및 적용: 건강가족적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생애주기 관점, 가족발달 관점, 삶의 균형 관점

□ 2차 설문지 수정 및 자문위원 검토

- 연구진 회의를 통한 문항 수정 : 9개 영역, 95개 문항
- 외부 자문위원 자문의견 요청 및 수합

□ 3차 설문지 수정 및 보완

- 자문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 문항 수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의견 수렴
- 9개 영역, 86개 문항

□ 예비조사 및 설문지 수정

- 일반인 및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
- 소요시간, 개념적 정의, 문항의 적절성과 모호성, 응답에 따른 문항 이동 안내 등에 대한 피드백
- 예비조사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 수정 : 10개 영역, 59개 문항

□ 최종 설문지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문항 수
가족 정의	가족에 대한 정의	1
신체적 건강	주관적 신체 건강, 돌봄 대상자 유무 및 심각도	2
가족 돌봄	자녀 돌봄(초등생 이하, 손자녀, 성인), 부모 돌봄, 양육 어려움 등	8

가족 생활	가사분담, 온라인 활용, 경제 상태 및 경제적 준비, 가족여가(활동, 의미, 장애요인 등), 노후생활 계획, 반려동물	15
가족 관계	상호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부부 관계(친밀감, 의사소통, 갈등 등), 부모자녀 관계(갈등, 의사결정 등)	9
가족 가치관	결혼 및 출산, 가족의례 및 문화, 성역할 태도, 부모부양 및 자녀양육, 자녀 가치관	5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참여, 이웃관계, 주거환경 만족도	4
가족서비스 수요	서비스/기관 인지도, 서비스 이용 경험, 개별 서비스 필요성	3
가족행복감 및 가족 건강성	개인 및 가족 행복, 개인 및 가족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및 연령, 혼인 상태(혼인 여부, 맞벌이 여부, 다문화 여부), 가족 구성원, 경제 상태(주관적 경제 상태, 평균 월소득, 소득 및 지출 변화 등)	9

□ 본조사(시범조사) 실시

- 일반인, 이용자 각 400명을 대상으로 시행
- 일반인 : 리서치 업체를 통해 총 431건 조사
- 센터 이용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구진의 개별센터 섭외 및 이용자DB 개별 요청을 통해 온라인 조사 353건, 지면 조사 47건으로 총 400건 완료

□ 본조사(시범조사) 결과

- 신체적 건강 영역

조사 대상자들의 신체적 건강은 ‘보통’ 과 ‘건강한 편’ 의 중간 수준이었으며,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보다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돌봄 요구자 유무에 대해서는 센터 이용자 집단과 센터 비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장애나 증상의 심각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임.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장애나 증상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

로 인해 센터나 요양원, 병원 등 기타 기관에 대한 요구나 선호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족돌봄 영역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 자녀가 있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녀 여부는 센터 이용의 주된 동기라고 할 수 있음. 돌봄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주 돌봄자의 부재 또는 주 돌봄 시설의 이용 불가 시, 두 집단 모두 가족 내에서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남.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이용자 집단에 비해 ‘자녀 지도’, ‘자녀 적응 문제’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손자녀 돌봄 여부나 향후 돌봄 지속 의사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성인자녀와 부모의 교류 수준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는 비이용자 집단에서, ‘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는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임

- 가족생활 영역

가족교류와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 간 온라인/모바일 활용에 대해서는 센터 이용자 집단의 교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자원관리의 경우,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임. 향후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센터 이용자 집단이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 수준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인 응답에서는 센터 이용자 집단은 ‘전년 대비 지출이 더 크다’고 답한 반면,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전년 대비 수입이 더 크다’고 답함. 센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제 및 재무 관리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족여가 활동 면에서 평일과 휴일의 가족여가 활동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는 없었고, 가족여가 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가

족여가의 장애 요인으로는 두 집단 모두 ‘시간 부족’, ‘경제적 부족’, ‘체력 부족’ 을 꼽음. 센터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가족여가 장애요인 없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음. 가족여가의 의미로는 두 집단 모두 ‘가족의 친밀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가족생활설계 면에서 가족생활에 필요한 일의 계획과 실천 모두에 있어 응답자들은 ‘보통’ 을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 센터 이용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는 두 집단 모두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노후생활 계획 및 실천 정도는 ‘보통’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고, 센터 이용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센터 이용자 집단에 비해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응답과 향후 기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모두가 높게 나타남

#### - 가족관계 영역

가족관계에서 상호지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면에서 센터 이용자 집단이 가족 간 상호지지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보였으며, 이용자 집단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관계 중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은 부부 간 친밀감, 배우자와의 하루 대화시간 등에 있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기혼 부부들의 갈등 정도와 요인,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두 집단 모두 부부갈등 대처방식으로서의 전문기관 도움 요청에 대한 응답이 매우 적게 나타남

부모-자녀 관계에서 좋은 부모상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 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 응답의 경우,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2순위에서도 1순위와 동일한 응답이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이용자 집단에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 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자녀와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 자녀와의 의견 충돌 경험은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학령기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은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문제’와 ‘교육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미혼 성인자녀와의 생애과업 관련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간 합의 결정’, ‘자녀 결정 후 부모 통보’가 다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 가족가치관 영역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에서 비혼,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는 센터 이용자 집단의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남

가족의례에 대한 가치관은 ‘가족이 함께 휴가나 여행을 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제사 및 명절에 가족이 모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가족 휴가 및 여행에 대한 중요성에 있어 센터 이용자 집단이 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성역할 가치관은 전반적으로 남성의 부양 및 여성의 가사 책임 등 전통적 성역할에 있어 응답자들의 동의 수준은 낮게 나타남. 남성의 가족부양 책임에 대해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관은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임.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정서적, 경제적 가치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임

#### - 지역사회참여 영역

전반적으로 센터 이용자 집단이 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센터 이용자 집단의 경우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며, 이웃과의 교류도 더 많은 것으로 보임. 자원봉사, 후원, 기부 등에 있어서도 센터 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주거환경 편의성과 안전에 대해서는 센터 비이용자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가족서비스 수요 영역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임. 가족센터 이용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80~90%가 넘는 비율이 경험한 적 없다고 응답하였고, 센터 이용자 집단은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공동육아 나눔터’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아이돌봄’, ‘가족돌봄자 지원’, ‘노후준비계획’, ‘1인 가구 지원서비스’ 등 세부적인 가족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센터 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보임. ‘가족돌봄자 지원’, ‘재난상황 가족돌봄’, ‘아이돌봄’ 등 돌봄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도가 나타남

## V. 결론 및 제언

□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의 전반적 운영방안

- 한국 가족의 역동적 변화와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다는 점과 현장을 통해 제공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수요를 즉각 반영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조사 주기를 2년으로 제안함
-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방식의 운영이 익숙해진 측면, 투입 자원의 경감 측면에서 온라인 조사 방식이 갖는 강점이 강조됨. 온라인 조사의 경우, 조사의 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집 과정에서 다양한 가구 형태가 포함될 수 있는 조사설계가 필요하며, 온라인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이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한국 가족의 특성 중 부각되는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설문 참여자는 다양한 모든 형태의 가족이 될 것임
- 조사 인원이 많을수록 조사 결과의 효용성은 향상되나, 자원의 제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기본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가 전제되어야 함. 이에 따라 연령, 미혼/기혼, 거주지역의 집단 구분을 고려하여 최소 1,600명 이상을 제안함.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되는 대상의 실태를 진단 별로 해석하기 위해 최소한의 분석 가능 인원수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함

- 조사 기간은 조사 참여 인원, 조사방법 및 예산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 조사를 전제로 할 경우 10~14일 이내로 제안함
- 조사의 홍보는 단순한 참여자 모집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야 함: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사이트, SNS 채널, 온라인조사업체 패널, 유관기관 등

□ 조사 결과의 활용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 결과는 센터 이용자 가족생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가족 간의 삶을 비교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한 가족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가족센터 이용자 가족의 현재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 제안의 근거로 작용하며, 이는 곧 가족정책이 근거 중심의 정책으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본 조사가 센터 이용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센터사업이 가족의 현실과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과 동시에 현재의 사업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목 차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1. 연구 필요성 .....	11
2. 연구 목적 .....	16
II. 연구수행체계 .....	19
III.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23
1. 기대효과 .....	25
2. 활용방안 .....	26
IV. 국내외 가족 관련 조사 현황 .....	27
1. 국내 가족 관련 조사 .....	29
2. 국외 가족 관련 조사 .....	46
3. 소결 .....	52
V.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7
1. 연구내용 .....	59
2. 연구방법 .....	60

VI. 연구결과	63
1. 설문지 문항 개발의 이론적 근거	65
1) 건강가족적 관점	66
2) 생태체계론적 관점	68
3) 생애주기·가족발달관점	69
4) 삶의 균형 관점	69
2. 설문지 문항 개발 과정	71
1) 이론적 근거와 설문지 문항 개발과의 연계	71
2) 선행조사자료의 분석	72
3) 설문지 문항 개발	75
3. 시범조사 결과	91
VII. 결론 및 제언	143
1. 시범조사 요약 및 사업연계	145
2. 운영방안	160
참고문헌	171
부    록	179

# 표 목차

[표 4-1] 가족실태조사.....	30
[표 4-2]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31
[표 4-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32
[표 4-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34
[표 4-5] 2019년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	35
[표 4-6] 2020년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35
[표 4-7] 포스트 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36
[표 4-8]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 조사.....	37
[표 4-9] 가족과 출산 조사.....	38
[표 4-10]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39
[표 4-11]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40
[표 4-12] 여성가족패널조사.....	41
[표 4-13]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3
[표 4-14]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44
[표 6-1] 최종 설문지에 반영된 이론적 근거.....	71
[표 6-2] 기존 가족 관련 조사연구(국내).....	73
[표 6-3] 설문지의 영역과 문항 조정 과정.....	78
[표 6-4] 최종 설문지 영역 및 문항 내용.....	78
[표 6-5] 가족실태조사와 가족생활변화 및 수요조사 설문지 비교.....	85
[표 6-6]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92
[표 6-7] 신체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94
[표 6-8] 간병/돌봄 필요한 가족원 유무.....	95
[표 6-9] 간병/돌봄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질환 및 장애의 심각성.....	95
[표 6-10] 자녀 유무.....	96
[표 6-11] 돌봄 상황 만족도.....	97

## 표 목차

[표 6-12] 주 양육시설 및 주 양육자 대신 돌보는 사람.....	97
[표 6-13] 자녀 양육 어려움.....	98
[표 6-14] 돌보는 손자녀와 동거 여부.....	99
[표 6-15] 손자녀 돌봄 부담감.....	99
[표 6-16] 향후 손자녀 돌봄 희망 여부.....	100
[표 6-17] 성인 자녀와 부모 간 교류 정도.....	100
[표 6-18] 가족 간 온라인 교류.....	101
[표 6-19]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기혼남녀).....	102
[표 6-20] 주관적 경제상태.....	102
[표 6-21] 경제적 자원의 관리.....	103
[표 6-22] 생활비 부담이 큰 항목.....	103
[표 6-23] 생활비 지출이 큰 항목.....	104
[표 6-24]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지출 변화.....	104
[표 6-25] 향후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105
[표 6-26] 가정의 수입과 지출 상태.....	106
[표 6-27] 평일 가족 여가 활동 1순위(최근 6개월).....	106
[표 6-28] 평일 가족 여가 활동 2순위(최근 6개월).....	107
[표 6-29] 휴일 가족 여가 활동 1순위(최근 6개월).....	108
[표 6-30] 휴일 가족 여가 활동 2순위(최근 6개월).....	109
[표 6-31] 가족여가생활 만족도.....	110
[표 6-32] 가족여가생활 장애요인(1순위).....	110
[표 6-33] 가족여가생활 장애요인(2순위).....	111
[표 6-34] 가족여가의 의미.....	111
[표 6-35] 가정생활설계.....	112
[표 6-36]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112

# 표 목차

[표 6-37] 노후생활 계획 및 실천정도.....	113
[표 6-38]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114
[표 6-39] 반려동물 여부와 이유.....	115
[표 6-40]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생각.....	115
[표 6-41] 가족 간 상호지지 정도.....	117
[표 6-42] 가족관계 만족도.....	118
[표 6-43] 부부 간 친밀감.....	118
[표 6-44]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119
[표 6-45] 배우자와의 갈등요인 및 대처양식.....	120
[표 6-46] 좋은 부모에 대한 생각(1순위).....	121
[표 6-47] 좋은 부모에 대한 생각(2순위).....	122
[표 6-48] 자녀와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	123
[표 6-49] 학령기 이상의 자녀와 의견 충돌 여부.....	124
[표 6-50]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1순위).....	125
[표 6-51]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2순위).....	125
[표 6-52]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1순위).....	126
[표 6-53]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2순위).....	127
[표 6-54] 미혼 성인자녀의 의사결정 유형.....	128
[표 6-55]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인식(가족가치관).....	129
[표 6-56] 가족의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30
[표 6-57] 성역할 가치관.....	131
[표 6-58] 부모-자녀 간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131
[표 6-59] 자녀 가치관.....	132
[표 6-60] 가정의 지역사회 관심과 대화.....	133
[표 6-61] 이웃과의 교류.....	134

## 표 목차

[표 6-62] 지역사회 참여.....	134
[표 6-63] 주거환경 만족도.....	135
[표 6-64]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136
[표 6-65] 가족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138
[표 6-66] 가족서비스 수요.....	139
[표 6-67] 행복감, 스트레스, 가정의 건강성.....	140
[표 6-68] 가정의 건강성.....	141
[표 7-1]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1.....	155
[표 7-2]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2.....	156
[표 7-3]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3.....	157
[표 7-4]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4.....	158
[표 7-5]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5.....	159

# 그림 목차

[그림 2-1] 연구수행체계 .....	21
[그림 5-1] 연구 흐름과 내용 .....	59
[그림 6-1] 설문지 개발에 적용한 이론적 관점 .....	65
[그림 6-2] 가정의 건강성 요소 .....	67
[그림 6-3] 가족생활변화 및 수요조사 설문지 개발과정 .....	75
[그림 6-4] 개발 설문지 .....	80
[그림 7-1] 설문지 및 실태조사 운영방안 .....	160



## 부록 목차

[부록 1] 개발 설문지 .....	181
[부록 2] 1차 자문 요청서 .....	202
[부록 3] 2차 자문 요청서 .....	204

# I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가족의 역동적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 정립의 필요성 증가

현재 한국 가족의 트렌드에서 빠른 변화 그리고 다양화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와 관계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다양화, 탈가족화, 평등성, 개인화, 가족관계의 도구화, 가족관계의 물신화 등의 트렌드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한국 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도 맞벌이 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분거가족 그리고 1인가구 등 계속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통계청, 2020)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체 가구 중 30.2%가 1인가구로, 그 중에서는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30대, 50대, 60대의 순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 안에서의 다양성을 함께 포착하여 지원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율의 감소가 부각되는데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통계청, 2021)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함께 맞벌이 가족이 계속 증가하여, 2020년 현재 45.4%로 나타난다(통계청, 2020).

한편 가족원 수의 감소 그리고 가족생활 관련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돌봄과 가사노동의 수행 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이현아, 권순범, 2021)를 보면,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1995-1999년 사이에는 여성들, 주부들, 전업주부 등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2015-2019년 사이에는 맞벌이, 육아휴직, 워킹맘 등이 높게, 그리고 2020-2021년에는 로봇 청소

기, 식기세척기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가족서비스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평등한 가족역할 수행을 지향하고, 가족들의 사생활과 개인적 삶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의 친밀성과 정서적 측면이 가족 내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주의 가치관과 극단적 개인주의 가치로 인해 이분법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가족 내에서도 이기심과 경쟁 등을 교육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과거 가족에 비해 더 개인주의화되고 전통적 성역할이 변화하고, 세대 간 돌봄의식이 약화되고 결혼관 및 자녀관 등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가족에 대한 기대와 가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누리고 싶은 안전과 행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가정의 건강성이라는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근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경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으며 최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및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지원을 강조하였고,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강조점 하에, 모든 가족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정책적 차원에서도 가족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업과 서비스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가족정책의 과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 가족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서비스 필요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가족서비스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그 방향을 검토하고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가족생활 변화에 따라 가족서비스를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와 관련된 조사와 분석, 진단의 필요성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와 관련된 근거, 기준, 방법, 분석,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를 사업별(예를 들면 가족상담 수요, 부모교육 수요 등)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다양한 목표와 방법, 기준 등에 따라 가족의 실태와 요구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이용자(이용 가족)의 일상생활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가족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연결시킬 수 있는 타당성과 실효성은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이용자(이용 가족)의 일상생활 특성과 추이 그리고 가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 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를 가족서비스의 방향 정립 그리고 구체적인 가족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활성화 필요

중앙 단위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 효율화 방안 또한 필요하다. 즉, 모든 가족의 다양성,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정책 강조점을 고려할 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고, 따라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구심점이 되어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중앙-광역-기초 등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앙 단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정책 개발과 제안,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인력 관리(양성과 보급,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강조점에 따라 가족 다양성 확장에 주목할 때, 모든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가족 서비스 방향 정립 그리고 가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활용 및 관리할 수 있는 가족 관련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족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용자의 실태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필요하다. 중앙 단위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가족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가족생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경로의 마련, 데이터 수집의 구체적인 내용과 항목 및 기준의 설정, 데이터 활용방안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생성된 가족 데이터를 근거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가족 맞춤형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의 틀과 내용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4)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이용자 대상 실태 및 수요조사 필요

위와 같이 가족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이용자의 가족생활실태 그리고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에 가족생활을 살펴본 실태조사들은 대부분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혹은 청소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서비스 전달체계가 제공하는 사업과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를 포함하여 실시한 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2020년)’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2021년)’가 있다. 이들 조사의 경우 코로나라는 특정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의 가족생활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통해 센터 이용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 집단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의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곧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 및 기능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및 서비스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에 주목, 가족의 일상생활에서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생성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가족 및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실태조사가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한 분석을 하였지만,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이용자 및 이용 가족에 주목하여 이들 집단의 일상생활 그리고 전달체계 이용에 대한 경험, 가족서비스 수요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가족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연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사업영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서비스 제공 방향을 진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가족 다양성 확장에 따른 가족서비스 방향 정립을 위한 자료 제공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족생활 관련 데이터 생성의 경로 및 활용방안을 통해 한국 가족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 서비스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서비스 방향 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기능 효율화 방안 제공

수요자 중심의 가족생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앙 단위 가족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능을 더욱 견고하게 정립하고자 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가족서비스의 방향과 구체적인 서비스는 전국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보급되므로, 이 연구를 통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뿐 아니라 전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 효율화를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

## 3)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의 근거 마련

한국 가족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결과를 통해 가족생활 관련 실태 및 요구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거 중심의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4) 가족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

가족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통해 이용자가 현장에서 직접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족서비스 이용자(이용 가족)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 II

## 연구수행체계



# 1

##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는 다음의 <그림 2-1>과 같은 수행체계로 진행되었다. 4명의 연구진과 연구보조원 2인으로 구성하여 선행연구 고찰, 설문지 개발, 개발된 설문지의 시범사업 및 분석, 가족생활 조사 운영방안 모색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2-1> 연구수행체계



# III

##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 1

## 기대효과

- 1) 가족생활 관련 실태 및 수요도 조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통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인 모든 가족의 다양성 포괄을 실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 2) 정책 이용자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근거 중심의 가족서비스를 제안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3) 전국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현장에 근거 중심의 가족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요자 및 가족서비스 이용자의 정책 및 서비스 체감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1) 정책 이용자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가족서비스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2)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현장(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족생활 관련 실태 및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설문지 구성 및 조사 운영과 관련된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 본 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실태 조사 방식의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보다 실효성이 향상된 실태조사의 도구(설문지) 그리고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바, 이러한 자료는 향후 다른 가족실태 관련 조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 4) 가족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가 제안한 가족생활 관련 데이터 수집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가족정책 발전방안 정립에 활용될 수 있다.

# IV

## 국내외 가족 관련 조사 현황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가족 및 가구 현황, 가족 관련 서비스 수요 파악과 예측 등을 목적으로 2000년 이후 실시된 조사들 중 국내 기관들이 주관하는 대표성 있는 조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인 가족 생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국 가족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대표적인 조사들, 즉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를 검토하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족의 실태 관련 문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패널 2018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족가치관 등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한국인의 가족인식 조사 등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둔 국내 조사들도 포함시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서비스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 구성을 위해 참고하고자, 가족센터의 서비스 이용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서비스 수요 관련 조사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청년, 중년, 노년 등 각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검토하였다.

# 1) 여성가족부 주관 조사

## (1)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2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5년 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다가 2020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최근 2020년도 4차 조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고(김영란 등, 2021), 향후 조사 실시 일정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2024년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12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가족 관련 가치관 및 인식과 더불어 가족관계 등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가족 관련 실태조사라 할 수 있다. 2018년 1월 법률 개정에 따라 이후의 조사에서는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문항들을 별도로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가족 변동 양상과 추이에 따른 가족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입안과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표 4-1> 가족실태조사(2020)

조사명/ 주관기관	가족실태조사(2020) / 여성가족부
조사목적	가족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가족정책 수립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조사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조사대상	모집단: 가구 및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표본 크기: 전국 10,971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필요시 자기기입, e-mail 등 병행)
조사기간	2020. 9. 8 - 2020. 9. 18 (3년 주기)
조사참여자	개인, 가족, 가구 대표 대상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있음
문항구성	총 3개 영역 89개 문항

## (2)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를 통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전통적 가족형태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2020, 2021a, 2021b).

조사에서 다루는 문항과 영역이 상당히 방대하고 기타의 가족 관련 실태조사들과 비교해볼 때, 이 조사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에 집중하여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다양성과 관련된 문항 이외에도 가족 지원정책 필요도,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표 4-2>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1)

조사명/ 주관기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1) / 여성가족부
조사목적	다양한 가족 포용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가족 다양성 관련 요소들에 대한 수용도를 파악하고자 함
조사대상	모집단: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표본 크기: 1,6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1. 5 (1년 주기)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문항구성	6영역, 33개 문항

### (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중인 조사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최운정 외, 2019). 이 조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과 가구용 설문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가구 대표뿐 아니라 가구원 개개인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하여 가구조사표,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조사표, 배우자 조사표, 청소년 자녀 조사표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므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관련 문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족서비스 수요와 관련하여 가족지원서비스와 전달기관에 대한 인지도, 이용경험, 수요나 필요성에 대한 문항들도 있다.

<표 4-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8)

조사명/ 주관기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조사목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함
조사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조사대상	모집단: 2017년 인구총조사 자료 기준, 대한민국 거주 다문화가족
	표본 크기: 전국 25,053 다문화가구
조사방법	조사원 면접조사 원칙, 필요시 서면조사 병행
조사기간	2018. 8. 9 - 2018. 8. 30 (3년 주기)
조사참여자	개인, 가족, 가구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있음(가구조사표/결혼이민자, 귀화자 조사표/배우자 조사표 /청소년 자녀 조사표 등 총 4개)
문항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구성표: 총 2개 영역, 7개 문항</li> <li>■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 총 5개 영역, 50개 문항</li> <li>■ 배우자 조사표: 총 6개 영역, 32개 문항</li> <li>■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표: 총 5개 영역, 33개 문항</li> </ul>

#### (4)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조사인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현황에 대한 통계치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정책 이용경험과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한부모지원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배호중 외, 2021). 이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첫 실시된 이래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가장 최근에는 2021년도에 실시되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대표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용 설문지의 구분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돌봄 관련 문항이 조사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양육비이행 및 친권, 양육권,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세부문항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표 4-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21)

조사명/ 주관기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2021) / 여성가족부
조사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현황에 대한 통계치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정책 이용경험과 정책욕구를 파악, 한부모지원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
조사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조사대상	모집단: 2019년 등록센서스 자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구(38만 4천가구)
	표본 크기: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
조사방법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1. 7 - 2021. 11 (3년 주기)
조사참여자	가구 대표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9개 분야, 20개 항목, 132개 세부문항

##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 조사

### (1)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2020),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2019)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비슷한 명칭의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가 2019년에 실시된 바 있다. 각각의 조사 시점에서 주요 관심을 받는 대상이나 주제에 맞추어 세부 조사주제가 선정되어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코로나 이후 가족 인식 변화’를 주제로 하여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명절 문화의 변화, 부모와의 관계, 결혼, 출산 및 육아와 가사 변화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9년도에는 20-30세대에 초점을 맞

취 이들의 연애와 결혼, 가족형태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점에 따라 대상과 주제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조사라 할 수 있으나, 시계열이나 트렌드 연구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표 4-5> 2019년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2019)

조사명/ 주관기관	2019년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201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목적	20-30대의 가치관 변화를 조사하고 서비스 개발 및 정책 제안을 위함
조사대상	모집단: 20-30대 성인남녀
	표본 크기: 1,000명
조사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9. 12. 9 - 2019. 12. 12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5개 영역, 60개 문항

<표 4-6> 2020년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2020)

조사명/ 주관기관	2020년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202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목적	코로나 전후 명절문화 변화, 부모와의 관계 변화, 결혼 및 출산, 육아, 가사의 변화 파악을 위함
조사대상	모집단: 전국 20세 이상 성인
	표본 크기: 1,1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0. 11. 16 - 2020. 11. 23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4개 영역, 90개 문항

## (2)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서비스 현황 및 수요조사들이 2020년도 여름부터 실시되었는데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0)’에서는 조사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족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과 함께 향후 서비스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제공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서비스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다.

<표 4-7>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2020)

조사명/ 주관기관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202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목적	코로나19가 가족지원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확인, 향후 서비스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인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함
조사대상	모집단: 201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표본 크기: 1,000명
조사방법	모바일 조사
조사기간	2020. 7. 9 - 2020. 7. 16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4개 영역, 35개 문항

## (3)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 조사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 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여 실시된 조사로 2021년도에 실시되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전환되며 더욱 장기

화 될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코로나 19가 진행 중이던 시기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건강가정지원 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경험과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가족서비스 조사와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들은 일반국민과 센터 이용 경험자 각각을 표집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센터 사업별 이용 경험뿐만 아니라 서비스별 요구도, 선호하는 서비스 방식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표 4-8>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 조사(2021)

조사명/ 주관기관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20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사목적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된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가족지원서비스의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조사대상	모집단: 일반국민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표본 크기: 일반 국민 1,500명 / 이용자 1,000명
조사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
조사기간	2021. 10. 2 - 2021. 10 7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3개 영역 24개 문항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조사

#### (1)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가족과 출산 조사’는 1964년 이래 2018년까지 계속되었던 3년 주기 조사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

건·복지 실태조사(출산력 조사)’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1년도 조사부터 사용되었다. 이 조사는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경로의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도 조사부터는 기혼자와 미혼자가 한 표본에 통합되었고,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현재 동거 중인 배우자 뿐 아니라 연인이나 파트너도 포함시켜 조사를 실시하였다(박종서 외, 2021). 조사대상은 가족이며 개인과 가구용 설문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임신과 출산 등에 초점을 두므로 특히 가족생애주기 초반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설문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4-9> 가족과 출산 조사(2021)

조사명/ 주관기관	가족과 출산 조사(202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경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
조사대상	모집단: 2021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표본들 구성)
	표본 크기: 9,999가구, 14,538명 (미혼과 기혼, 남성과 여성은 모두 한 표본이며 19~49세의 연령)
조사방법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기간	2021. 10. 5 - 2021. 12. 15 (3년 주기)
조사참여자	가족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있음
문항구성	총 2개 영역, 112개 문항

## (2)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는 신중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신중년들의 변화된 생활상과 가치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황남희 외, 2019). 2019년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전국 50~69세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4천 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 개인과 가구용 설문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비동거 부모 및 자녀와의 부양과 교환에 대한 문항이 있으며, 가족서비스와 관련한 문항들은 신중년층 일자리 및 노후지원 정책 등 정책적 수요, 웰다잉과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수요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 가치관, 사회 참여,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에 관한 문항이 다수이며 정책은 주로 노후 준비 정책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0>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2019)

조사명/ 주관기관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20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함
조사대상	모집단: 전국의 50~69세 국민 (2017년 기준 집계 가구 10만 3,990개, 전체 가구는 약 1,967만 가구, 전체 인구는 약 4,936만 명)
	표본 크기: 총 4,006명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2019. 7. 15 - 2019. 8. 29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2개 영역, 61개 문항

### (3)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는 청년의 총체적 삶을 실태와 욕구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만들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세정 외, 2020). 이 조사는 「청년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를 모집단으로 실시된다. 청년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개인과 가구용 설문지의 구분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다. 청년 정책 관련 문항들이 있으나 노동과 고용 관련 질문, 사회적 지지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문항은 적은 편이다.

<표 4-11>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조사명/ 주관기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목적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조사근거	「청년기본법」 제11조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 시점 기준 전국 일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민 (조사대상 인구: 1096만 3939명)
	표본 크기: 총 3,018명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2019. 11 - 2020. 1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2개 영역, 46개 문항

####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 여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주재선 등, 2020),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생애주기별 여성의 삶과 가족 구조, 가족과정과 생활, 생애과정과 가치관, 일자리 등 실태를 추적하여 파악하고자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주기는 초반에 매년 실시하다가 2010년 이후로는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2020년도 실시한 8차 조사에 대한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이 조사는 패널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출산과 돌봄, 경제활동, 가족, 건강, 일가정 양립, 성역할 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대상은 여성 개인과 가족이며, 가구용, 여성개인용, 일자리용 등 3개의 설문지로 구성된 조사가 실시된다.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가족돌봄, 가족가치 등에 대한 문항이 존재하며, 2020년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및 여성 삶의 변화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가구 설문 보다는 여성 개인에 대한 설문 중 가족가치, 성역할 태도 등의 문항들을 통해 가족가치관과 인식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표 4-12> 여성가족패널조사(2020)

조사명/ 주관기관	여성가족패널조사 (202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목적	한국 여성의 현황 파악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함
조사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

조사대상	모집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가구와 가구에 존재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
	표본 크기: 총 9,906가구 12,710명
조사방법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0. 4 (2년 주기)
조사참여자	개인과 가족 대상 / 가구용, 여성 개인용, 일자리용 3가지로 구분
문항구성	가구용: 총 6개 영역(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영역 추가) 개인용: 총 22개 영역(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삶의 변화 추가) 일자리용: 총 14개 영역

## 5) 한국고용정보원 주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이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고령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다각도로 포착하고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축적하며 나아가 선진국과 비교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여 고령화 정책 및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김경희 외, 2021).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1차 조사 이래로 2년 주기로 기본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격년으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패널이 사망할 경우 가족이나 친지를 대상으로 사망자의 사망 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문항 대부분이 고령자에 집중되어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가족관계,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가족돌봄 등과 관련된 문항들이 존재한다. 부모, 비동거 및 동거 자녀, 손자녀 등에 대한 세부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후생

활을 위한 가족서비스 제공이나 가족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항들이 존재한다.

<표 4-13> 제8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2020)

조사명/ 주관기관	제8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20년) /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목적	고령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다각도로 포착하고, 여러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며,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이미 고령자 대상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여 고령화 정책 및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의 활용하기 위함
조사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
조사대상	모집단: 제주도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국민
	표본 크기: 2006년 10,254명 패널 구축
조사방법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방법(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기간	2020. 8 - 2020. 12 (2년 주기)
조사참여자	개인 대상 / 개인 및 가구용 설문지 구분 없음
문항구성	총 9개 영역으로 구성

##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과 발달 양상을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비전을 설정,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이다. 조사는 1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모집단은 2018년 1차 조사 실시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원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2,607명, 그리고 이들의 보호자 2,607명과 초등학생 4학년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명이 포함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원패널은 2,590명으로 이들의 보호자 2,590명, 중학교 1학년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명으로 구성된다(하형석 외, 2021).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아동·청소년용과 부모용 설문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용 설문지의 문항구성이 발달적 특성에 맞춰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과 부모용 설문지에서 모두 개인의 사회, 정서, 역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가족생활 관련 문항은 가족관계,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가족돌봄에 대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서비스 관련 문항은 없으나 교육 관련 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매해 스페셜 모듈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시점에서 기관이 원하는 주제나 이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

<표 4-14> 제4차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조사명/ 주관기관	제4차 아동·청소년패널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목적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발달 양상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비전을 설정, 수립, 시행하기 위함
조사근거	「통계법」 제18조
조사대상	모집단: 2018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교육부 2017 교육기본통계 근거)
	표본 크기: 다단계화집락표집으로 추출한 5,197명(원패널) - 초4 코호트 : 2,607명, 원패널의 보호자 2,607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명 - 중1 코호트 : 2,590명, 원패널의 보호자 2,590명, 원패널의 형제자매 1,000명

조사방법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 태블릿 PC를 활용한 개별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1. 9 - 2021. 12 (1년 주기)
조사참여자	개인, 가족 대상 / 아동·청소년, 부모용 설문지 구분
문항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4 코호트: 대분류 3개 영역(스페셜 모듈 포함), 중분류 9개 영역, 총 23개 문항</li> <li>■ 중1 코호트: 대분류 3개 영역(스페셜 모듈 포함), 중분류 10개 영역, 총 34개 문항</li> <li>■ 부모용: 대분류 4개 영역(스페셜 모듈 포함), 중분류 5개 영역, 총 25개 문항</li> </ul>

앞서 가족의 실태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국내 가족 관련 조사들을 선정한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국외 가족 관련 조사들을 살펴보았다. 국외 조사들은 구글 웹사이트에서 영문 키워드 ‘family survey’로 검색 가능한 문헌들에 한하여 고찰하였다<sup>1)</sup>. ‘가족’, ‘가구’ 등의 단어가 조사 명칭에 포함된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조사의 목적이 인구와 소득에 집중되어 있는 조사들은 배제하였다. 패널조사 또는 다차년도 조사일 경우 가장 최근에 발간된 조사내용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 1)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미국)

이 조사는 미국의 보건통계국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1973년부터 시작되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임신과 출산, 결혼과 동거, 불임, 피임, 가족생활과 모자 건강 등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초기에는 결혼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기혼인 15세-44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이후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2002년도 이후로는 남성 표본도 포함시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d.).

조사 계획과 지원에는 인구, 아동, 가족, 여성건강, 출산, 영양 관련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결혼, 이혼, 출산, 가족형성, 모자 보건 등을 다루는 행동과학과 공중보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적으로는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

1) 가족서비스 수요와 관련한 조사를 찾기 위해 ‘family service survey’로 검색할 경우, 대표성 있는 조사가 아니면서(예: 특정 센터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것)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국한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검색어를 이용하였다.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 2)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Series (미국)

이 조사는 National 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 and Human Development 산하 인구연구센터의 지원 하에 University of Michigan, Temple University 연구진들에 의해 수행된 조사이다. 이전의 국가 조사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7년부터 2002년까지 3주기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로(ICPSR, n.d.), 가족 구조, 가족 과정, 가족 관계 등에 초점을 두어 미국의 가족생활과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생애과정과 가족형성에 대한 방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기 생활환경, 가족 구성, 관계, 교육, 출산력, 취업 이력뿐 아니라 결혼과 부모됨, 친족 관계, 경제적 및 심리적 웰빙 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커플, 신혼기 커플 등에 대해서는 과다표집(oversampling)을 실시하여 살펴보고 있다.

## 3)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미국)

이 조사는 1997년, 1999년, 그리고 2002년에 걸쳐 총 3회 실시된 조사로, Urban Institute가 사업을 주관하고 Westat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록펠러 재단 등 민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조사이다(MCH Data Connect, n.d.). 이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아동, 성인, 가족의 웰빙 지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사회제도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게로 이관한 연방 정책의 변화가 저소득층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 소득 안전, 직무 연수, 사회서비스

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아동 돌봄이나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 4) American National Family Life Survey (미국)

이 조사는 2021년도에 The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Cox, 2022;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 2022). 물문교와 유대교의 경우 과다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더불어 가족 형성과 가족 기능이 진화하게 되면서 결혼이나 자녀,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한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삶이나 사회관계망 만족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부담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5) Family Resource Survey (영국)

이 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영국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영국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UK Government, n.d.; UK Government, 202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n.d.). 소득, 주거환경, 그리고 가족 영역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는데, 가족 영역의 경우 가족돌봄에 대한 요구와 책임, 장애, 취업, 식품 안정성(food security)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 6) Families in Australia Survey (호주)

이 조사는 호주 정부기관인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2020년도에 시작되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총 2회

조사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n.d.; Budinski et al., 2020). 동일한 조사명으로 1992년도에 단발적으로 시행된 기록이 남아 있으나(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 1992년 이후로는 2020년도 이전까지 다시 실시된 기록이 없다. 현재 2020년도부터 시작하여 2021년도 하반기 조사인 제4차 조사까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호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되는데, 주로 가족의 관계나 연결, 지지 체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 학업 등 여러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사대상자 표집에 있어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지 않고 다만 호주의 가족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조사는 편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표집을 위해 SNS, 전통적인 매체(우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조사와 결과분석 방식은 복합 방식(mixed-methods)으로, 양적 및 질적 조사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설문을 통해 응답 선택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도록 하여 해당 내용을 분석하는데, 2021년도 하반기 조사에서는 2,393명의 조부모 응답자들 중 1,109명이 의견을 남겼다. 또한 스페셜 모듈 문항들을(예: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운영하고 있다.

## 7) Family and Community Experience Survey (호주)

이 조사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조사로, 호주에 주거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n.d.). 호주 가구의 삶의 질과 호주 사람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조사로, 지역사회나 이웃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온라인 상호작용, 교육, 전반적인 신체건강과 웰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조사한다. 정부와 지역위원회 등의 정책 결정을 돕고 지역사회의 요

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 8) National Survey on Family and Economic Conditions (일본)

이 조사는 2009년도 게이오 대학 연구진들이 일본 교육부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 조사로 일본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수행되었다(ICPSR, 2013). 이 조사는 일본 국가기관의 인구조사와 달리, 초기 생애과정에 있어 교육, 취업, 결혼, 가족생활, 자녀돌봄, 가정관리, 성 역할 등에 초점을 두어 문항 설계가 이루어졌다.

## 9)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인도)

이 조사는 1992년에 시작된 것으로 다차년도 조사이기는 하나 조사주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조사주기를 살펴보면 직전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5년 전후로 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5차 조사(2019-2021)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n.d.). 이 조사에서는 출산, 유·아동 사망률, 가족계획 실천, 모자 보건, 출산 건강, 영양, 건강과 가족계획 서비스의 활용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 인도의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가 주관하여, 보건가족복지부 및 관련 부처에 정책과 프로그램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건강과 가족복지 관련 새로운 이슈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이다.

## 10) Malaysian Population and Family Survey (말레이시아)

이 조사는 1974년도에 시작되어 10년 주기로 말레이시아 인구가족발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에 의해 실

시되는 조사로,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가족인구적인 측면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n.d.;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 2016). 조사 문항들을 살펴보면 인구성장, 결혼과 출산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청소년 행동, 1인 가구 및 노후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5주기 조사에서는 결혼, 가족 상호작용, 건강 실천, 노년의 삶과 청소년의 성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보들을 수집하였고 일-가정 균형, 웰빙, 모유 수유, 이차성 불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 연구의 설문지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의 유사 조사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조사들로는 가족의 실태, 인식, 수요 관련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최근 보고서를 포함, 여성가족부나 정책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관련 조사들을 검토하였고, 설문지 개발에 반영된 주요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조사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조사목적 이미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동시에 조사시기에 있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변화로 인해서 시의성있게 실시된 조사들도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한 가족인식이나 서비스 조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층, 신중년층 대상 조사는 사회적 관심사인 이슈(청년, 코로나 19 등)와 연계된 시의성있는 조사였고, 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실시주체는 주무부처가 아니라 연구용역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었으며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조사로서 개인 또는 가구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둘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하는 가족인식 조사 등의 문항들은 2020년 조사부터 영역별 문항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각 연도의 조사문항이 상이하므로 직접 비교가 불가하고, 해당 조사만이 갖는 차별화된 문항들을 통해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일반 국민에게 기관과 사업에 대해 널리 알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사 및 설문문항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실태조사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청 승인 조사인 경우, 조사 시점의 주된 이슈나 쟁점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

으며,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및 가족변화를 반영하여 일-생활 균형, 지역 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초점을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들에 비해 유연하게 조사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조사들과 차별화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한국가족의 변화 추이나 새로운 양상을 파악하고 포착하는 데 있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관점들을 토대로 설문에 신규 문항 또는 보다 세분화된 문항들을 구성함으로써 한국가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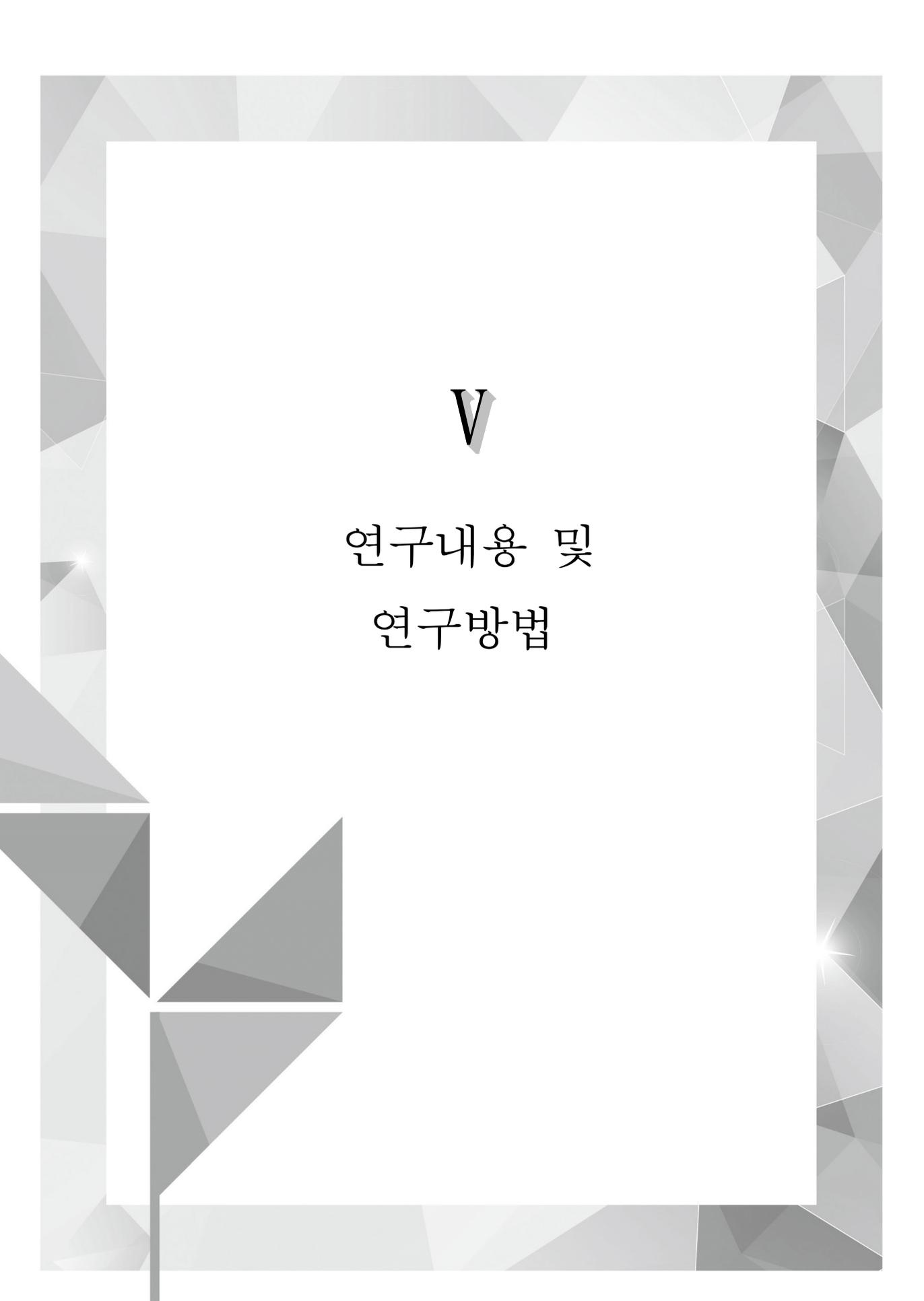
넷째, 각 조사별 대상에 따라 부모부양과 자녀돌봄 문항의 종류나 유형이 상이하였다. 자녀돌봄의 경우 이용시설과 돌봄시간 관련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 조사들이 다수이며, 배우자 돌봄을 함께 살펴보는 조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가족가치관 문항들 또한 자녀관, 노후관, 성역할 인식 등이 여러 조사들에 산재되어 있고 조사 시점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가족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경험과 빈도, 필요성 등에 대한 문항들이 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 탐색과 발굴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설문지 개발에서는 기존의 조사들에 있어 유사한 문항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자녀돌봄 이용시설과 시간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사회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경험을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변화 추이와 신규 수요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조사의 경우 조사주기와 방식 등 조사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지 개발에서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세부문항에 대해서는 국내 조사들을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고찰하였던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는 국내 조사 중 가족과 출산 조사, 가족실태조사 등의 설계에

있어 참고가 되었던 것들로,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가족서비스 수요와 운영방안에 참고 가능한 문항들은 국내 조사에 상당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는 문항 다수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조사주기 등 조사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실시되기 시작한 American National Family Life Survey의 경우 사회적 삶, 사회관계망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큰 편이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에서도 지역사회 관련 문항을 기존의 조사들에 비해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Family Resource Survey는 기본적으로 소득, 자산 등에 대한 문항이 방대하긴 하나, 이외에도 가족원의 장애 정도,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원, 돌봄의 부담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설문지 개발 과정에서도 자녀 돌봄 이외에도 가족원이나 배우자 돌봄에 대한 문항을 포함시키고 국내 조사들에 나타난 관련 문항들을 고찰하였다. 호주의 Families in Australia Survey는 기존의 국내외 조사들과 비교할 때 다소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어 조사주기, 운영 등에 대해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정량과 정성조사가 병행되고 있고 표집방법이나 대상, 주제, 문항에 있어서도 조사 시점마다 달라지고 있어 본 과제가 목적하는 바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코로나19 이후로 손자녀돌봄이 이 조사의 큰 주제로 선정되어 실시되었던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항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가족돌봄 중 손자녀돌봄 문항들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일본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and Economic Conditions는 성인으로서 가족을 형성하고 출산하는 등의 과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국내 가족과 출산 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과 중첩되거나 유사한 문항들이 상당수이다. 인도의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는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국내 가족과 출산조사, 가족실태조사 등과 유사하며, 미국의 RAND와 협업하여 실시된 Malaysian Population and Family Survey 또한 미국의 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에 포함된 자녀가치관(자녀의 경제적 가

치)이나 불임 등의 내용을 본 연구의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개발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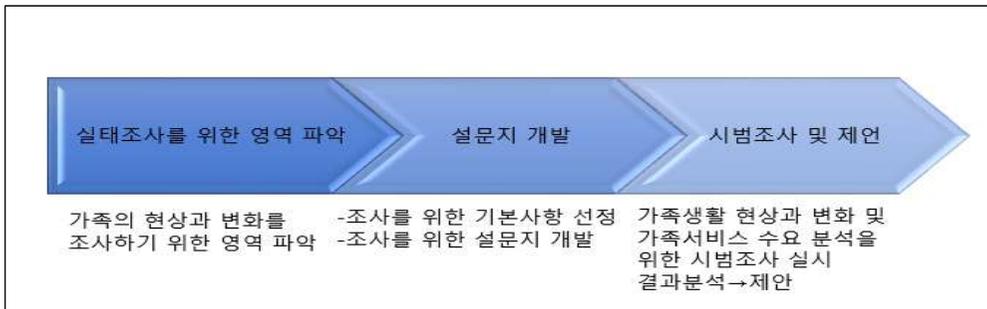
V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사 기본사항 및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며, 셋째는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활용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그림 5-1〉 연구 흐름과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에는 가족생활 관련 조사 현황을 파악하여, 가족 서비스 수요와 가족생활 변화에 관한 조사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가족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가족생활 영역을 선정하여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두 번째 내용에는 정기적 조사 수행에 관한 기본사항(조사 대상, 표본 수, 조사 방식, 조사 주기 등)을 검토하고, 가족생활 및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를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에는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 문항으로 실제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기적 조사 실시 및 활용 방안에 관해 제언하는 것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국내 사회조사들을 찾아서 내용, 대상, 운영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하는 패널조사 및 실태조사 자료가 포함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영역과 문항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본 조사에서 개발할 설문지의 토대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문헌 연구 분석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국내외 가족 관련 조사 및 기존 사회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일차로 9개 조사 영역과 141개 설문 문항(척도는 하나의 문항으로 처리)을 도출한 후 연구진 회의를 거쳐 중복 가능성 있는 문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두 번의 회의에 걸쳐 95개로 조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9개 영역 95개 문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가족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2명과 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2명 등 총 4명에게 받았으며, 주로 영역과 문항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별개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9개 영역 86개 문항으로 조정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22년 9월 14일에서 19일 사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비이용자 및 이용자 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요시간, 문항의 적절성과 모호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문항을 더 축소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영역의 59개 문항(척도 개별 문항 포함 162개 문항)으로 조정되었다.

본조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이하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

하였다. 센터 비이용자는 온라인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431명(남성 212명, 여성 219명)의 설문이 수집되었고, 센터 이용자는 개별 센터를 통해 모집하여 400명(남성 49명, 여성 350명, 무응답 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대상자 중 비이용자 집단은 조사전문 업체를 통해서 성별과 연령별 할당표집을 하였고, 이용자 집단은 한가원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때 활용되는 이용자 정보(전화번호)와 개별 센터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용자 집단의 경우 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자녀를 둔 여성임을 고려할 때 할당표집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된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 집단 조사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전국의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 가구특성 등에 있어 역시 표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조사의 목적이 추후 이루어질 실제 조사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시범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결과에 있어 그 일반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추후 본 질문지를 토대로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대상자들의 지역,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 가족서비스 수요나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표집 여부와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초통계분석을 통해 빈도표와 집단 비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집단 비교는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비교하여, 센터 이용자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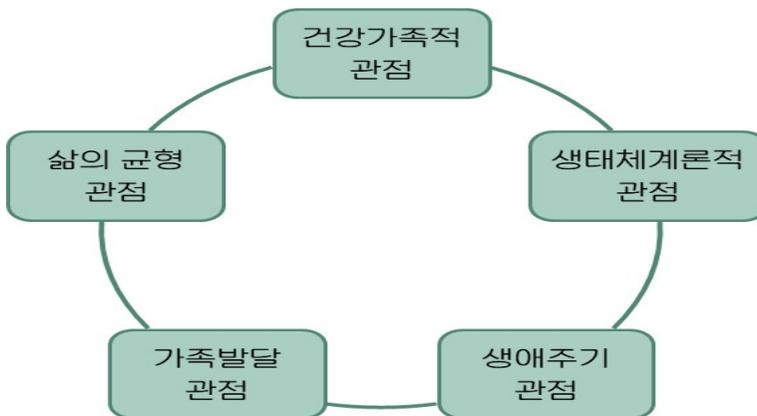


# VI

##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현상과 변화를 분석하여 가족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목표와 연결되는 자료의 수집이 중요한데,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족의 역동적 변화와 다양성, 가족의 전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족돌봄의 부담, 개인-가족-사회의 상호작용, 가족정책의 핵심 이슈 등 가족 관련 현상 분석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가족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 기획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주제와 강조점 그리고 연구의 목표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관련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총 5개의 이론적 관점을 선정하였다. 5개의 이론적 관점은 건강가족적 관점, 생태체계론적 관점, 생애주기 관점, 가족발달 관점 그리고 삶의 균형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함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근거로 적용하였다.



〈그림 6-1〉 설문지 개발에 적용한 이론적 관점

## 1) 건강가족적 관점

건강가족적 관점은 모든 가족이 갖는 잠재적인 성공 영역과 요인에 주목하여 가족이 갖는 강점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기능을 강조하며,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 회복력과 탄력성, 균형성 등에 관심을 갖는다(조희금 외, 2018).

이 연구의 틀을 설계하고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강가족적 관점은 핵심적인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분석하고 가족서비스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족정책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대표성을 갖는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를 통한 건강가정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이용하는 다양한 가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가족의 현상과 변화 그리고 가족서비스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사업 제안은 결과적으로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현장인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사업 기획에 반영되고,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전달체계의 기능과 목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그리고 건강가정서비스전달체계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향성으로 건강가족적 관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은 가족서비스 기획의 지향성이며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건강가족적 관점은 가정의 건강성 요소에 관심을 갖는다. 즉 추상적인 가정의 건강성 개념을 다양한 요소로 전환시켜 현장 사업 기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학자들이 건강성 요소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된 가정의 건강성 요소는 가정생활의 다양한 영역과 그 내용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의 균형성을 파악하게 해주는 강점을 갖는다. 즉, 가정생활은 경제생활과 의식주 생활을 포함한 기본적인 토대 하에, 가족

원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가사노동과 가족자원관리, 구매와 소비활동, 자녀돌봄과 부모역할 수행, 여가생활, 가족원의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영역에서의 생활내용을 균형있게 포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건강가족적 관점에서 개발된 가정의 건강성 요소는 아래 그림처럼 경제적 안정,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 간 열린 대화, 휴식과 여가의 공유, 가족역할의 공유, 일과 가정의 조화, 합리적 자원관리, 자녀성장 발달지원, 시민의식과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가정문화 창조유지까지 가정생활의 여러 측면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정생활의 현상과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설문지 개발에 유용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2〉 가정의 건강성 요소(조희금 외, 2018)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족적 관점에서 가정의 건강성 요소를 검토하여 설문지의 틀 구성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설문지 영역과 세부요소를 구성하고, 나아가 건강가족적 관점에서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파악하며 이에 기초하여 가족서비스 수요를 포착하고자 한다.

## 2) 생태체계론적 관점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파악하고 가족서비스 수요를 포착함에 있어, 가족원의 역할과 삶의 터전 등을 고려할 때 한 개인으로서, 가족원으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양한 생활경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생태체계론적 관점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생태체계론적 관점은 가족과 가정생활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생활과학의 주축 이론이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가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조희금 외, 2008). 생태체계론적 관점을 통해 가족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가족이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맺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가족원 개인의 경험, 공동의 생활단위로서 가족의 삶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족원 개인의 행복감, 가족가치, 가족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 지역에 대한 관심 등의 영역에서 세부적인 문항을 구성하였다.

생태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한 설문지를 통해 가족과 외부환경, 가족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특히 외부 전달체계의 사업이 가족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가족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다.

### 3) 생애주기·가족발달관점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관점과 가족발달관점을 합하여 생애주기가족 발달관점을 적용하였다. 생애주기 관점은 가족의 변화를 주기에 따라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가족의 역동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족발달이론은 가족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족의 변화에 따른 요구와 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조희금 외, 2008). 가족은 그 형성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발달과제를 갖는데, 그런 점에서 생애주기·가족발달관점을 적용하여 설문지를 개발하면, 전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의 실태 그리고 모든 생애주기의 서비스 수요를 균형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애주기·가족발달관점을 적용하여 가족 형성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발달과제를 파악하고, 가족의 실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포착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별로 생활의 특성과 다양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생애주기별 변화요소를 포착하면서 출산과 돌봄, 부모역할, 생애설계, 노후준비 등 핵심적인 가족발달과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가족의 발달과제를 포착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태조사에 사용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가족사업 기획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4) 삶의 균형 관점

일과 가정의 조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사회정책 그리고 가족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에 따라 양성간 평등한 돌봄분담의 필요성과 함께 워라벨 실현에 대한 요구도 상승되고 있다. 그런데 일과 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두면, 일하는 집단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며, 따라서 일하지 않는 집단, 예컨대 은퇴 후 노년기의 삶이

나 전업주부의 삶은 조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보다 삶의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송혜림, 2022). 즉, 일하는 집단뿐 아니라 모든 가족원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균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가족원의 시간 배분, 가족 여가, 가사분담의 공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내용을 포함 시키고, 삶의 균형에 영향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삶의 균형 관점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삶의 균형 실태와 장애 요소를 파악하며 나아가 가족원 삶의 균형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다.

## 1) 이론적 근거와 설문지 문항 개발과의 연계

본 연구에서 설문지를 개발할 때 검토한 이론적 근거, 즉 건강가족 관점, 생태체계 관점, 생애주기가족발달 관점, 삶의 균형 관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문에 반영되었는지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1> 최종 설문지에 반영된 이론적 근거

영역	문항내용	이론적 관점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지지</li> <li>- 가족관계 만족도</li> <li>- 부부관계(친밀감, 의사소통, 갈등 등)</li> <li>- 부모자녀관계(갈등, 의사결정 등)</li> <li>- 자녀연령별 부모자녀 관계(갈등, 의사결정 등)</li> </ul>	건강가족 관점 생태체계 관점
신체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신체 건강</li> <li>- 돌봄 대상자 유무 및 심각도</li> </ul>	건강가족 관점
가족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및 출산</li> <li>- 가족의례 및 문화</li> <li>- 성역할 태도</li> <li>- 부모부양 및 자녀양육</li> <li>- 자녀 가치관</li> </ul>	생애주기가족발달 관점
가족행복감 및 건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행복감</li> <li>- 가족건강성</li> </ul>	건강가족 관점
가족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돌봄(초등생 이하, 손자녀, 성인)</li> <li>- 부모 돌봄</li> <li>- 양육 어려움 등</li> </ul>	삶의 균형 관점

가족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분담</li> <li>- 온라인 활용</li> <li>- 경제 상태 및 경제적 준비</li> <li>- 가족여가(활동, 의미, 장애요인 등)</li> <li>- 노후생활 계획</li> <li>- 반려동물</li> </ul>	삶의 균형 관점 생애주기/가족발달 관점
가족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기관 인지도</li> <li>- 서비스 이용 경험</li> <li>- 개별 서비스 필요성</li> </ul>	건강가족 관점 생태체계 관점
지역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참여</li> <li>- 이웃관계</li> <li>- 주거환경 만족도</li> </ul>	건강가족 관점 생태체계 관점

## 2) 선행조사자료의 분석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현상과 변화 그리고 가족서비스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함에 있어, 가족생활을 조사한 선행자료들을 검토하였다. 기존 조사 자료들을 분석할 때, 해당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크게 가족생활실태, 가족서비스 수요의 2개의 대주제로 먼저 분류한 후, 가족생활실태 관련 문항들은 다시 가족관계, 가족형성과 변화,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가족돌봄, 가족가치의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자료들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면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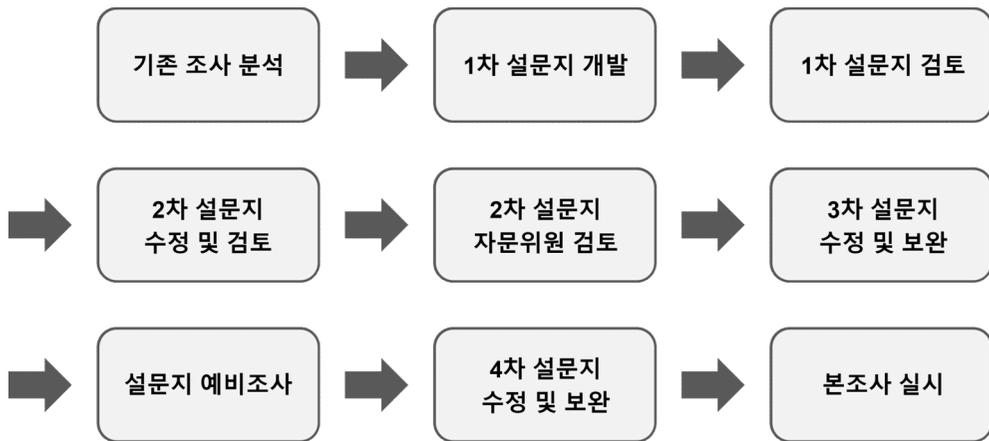
<표 6-2> 기존 가족 관련 조사연구(국내)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 규모	영역	문항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4일	20-30대 성인남녀	1,000명	5	60
2020년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8일	20세 이상 성인	1,100명	4	65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8일	2019년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1,000명	4	35
코로나 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일	일반 국민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일반 국민 1,500명, 센터 이용자 1,000명	3	79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개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민	3,018명	2	46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일	50~69세 국민	4,006명	2	61
가족과 출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2일 (3년 주기)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9,999가구, 14,538명	2	112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11일 (3년 주기)	가구 및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10,971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	10 (7)	89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여성가족부	1개월 (1년 주기)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1,600명	6	33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일 (2년 주기)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06가구, 12,710명	6	3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	4개월 (2년 주기)	제주도를 제외한 45세 이상 국민	10,254명	7	3,00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2일 (3년 주기)	대한민국 거주 다문화가족	전국 25,053 다문화 가구	18	12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5개월 (3년 주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	9개 분야 20개 항목	13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3개월 (1년 주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	5,197명	대분류 : 10 중분류 : 24	82

### 3) 설문지 문항 개발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 개발은 총 4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행되었고 다음의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 가족생활변화 및 수요조사 설문지 개발과정

#### (1)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이론적 관점 확정 및 1차 설문 영역·문항 개발

연구진들이 연구목적,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조사기관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통해 건강가족적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생애주기와 가족발달 관점, 삶의 균형 관점으로 종합하고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문항 영역과 내용을 결정하였다. 기존 선행조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총 9개 영역(기본정보, 건강, 가족행복감 및 가정의 건강성,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가족서비스 수요도, 지역사회 참여), 141개 문항을 개발한 후 논의를 거쳐 105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 (2) 2차 설문지 문항 수정 및 1차 자문위원 검토

1차 개발된 설문지를 연구진에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기존 연구와 유사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1차 개발에서 9개 영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문항을 부분 삭제 조정하여 2차 설문지를 9개 영역 95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2차에서 개발된 설문지에 대하여 4명의 외부 자문위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 설문지 구성, 조사 운영방안 등의 소주제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설문지의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의 범위와 가족생활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혼란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의 궁극적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조사가 이용자 대상의 가족생활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지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가 등에 따라 조사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설문지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미혼자와 1인 가구를 최대한 포함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모든 가구원에 해당하는 공통내용 그리고 해당 가구에만 관련되는 내용을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가족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문항들을 조사상황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설문지 전체의 문항 수가 많아서 응답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울러 응답범주에서 ‘해당없음’의 선지가 응답 피로도를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가구,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는 조사인 만큼 개인 단위의 질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넷째, 조사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의 표집에 있어서 특정 가족이 과표집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 패널조사 방식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시군구 단위의 다양한 표집방법(집락표집, 할당표집, 층화집락표집 등)을 사용한 조사 등에 대한 제안이 도출되었다. 조사주기는 기존 조사와의 차별성과 자료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조사 간격이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동시에 정기적 실시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연구진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적용하였다. 즉, 가족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여 제시, 설문지 문항 수를 삭제 조정, 가족 유형에 따라 응답지의 선택 조건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9개 영역, 86개 문항으로 3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3) 예비조사 실시 및 3차 설문지 문항 수정

3차 수정한 설문지를 토대로 일반인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총 1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석한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설문지 분량의 과다함으로 인해 응답 소요시간이 길어짐에 대한 수정 요청, 가족 등의 개념에 대한 혼란감, 문항의 적절성과 모호성, 응답에 따른 문항 이동 안내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예비조사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문지 문항을 10개 영역, 59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영역과 문항 조정과정은 아래 <표 6-3>와 같다. 표에서는 1차 개발에서부터 최종 완료에 이르기까지 영역과 문항의 수정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단계에서 9개 영역 141문항으로 개발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역은 10개 영역으로 늘어난 반면, 문항 수는 대폭 축소하여 59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표 6-3>과 같이 총 10개 영역의 5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6-3> 설문지의 영역과 문항 조정 과정

영역	1차 개발	1차 수정	2차 수정	자문 반영 3차 수정	예비조사 후 최종 완료
인구사회학적 특성	4	-	16	15	10
기본 토대	44	15	5	4	-
가족 정의	-	-	-	-	1
신체적 건강	-	-	-	-	2
가족 돌봄	33	19	21	19	8
가족 생활	21	21	23	20	15
가족 관계	24	17	13	13	9
가치와 문화	5	5	5	5	5
지역사회공동체	3	3	4	4	4
서비스 수요	4	3	3	3	3
행 복 감	3	4	-	-	-
기 타	-	18	-	-	-
스트레스와 만족도	-	-	5	3	-
가정의 건강성	-	-	-	-	2
총 문항 수	141	105	95	8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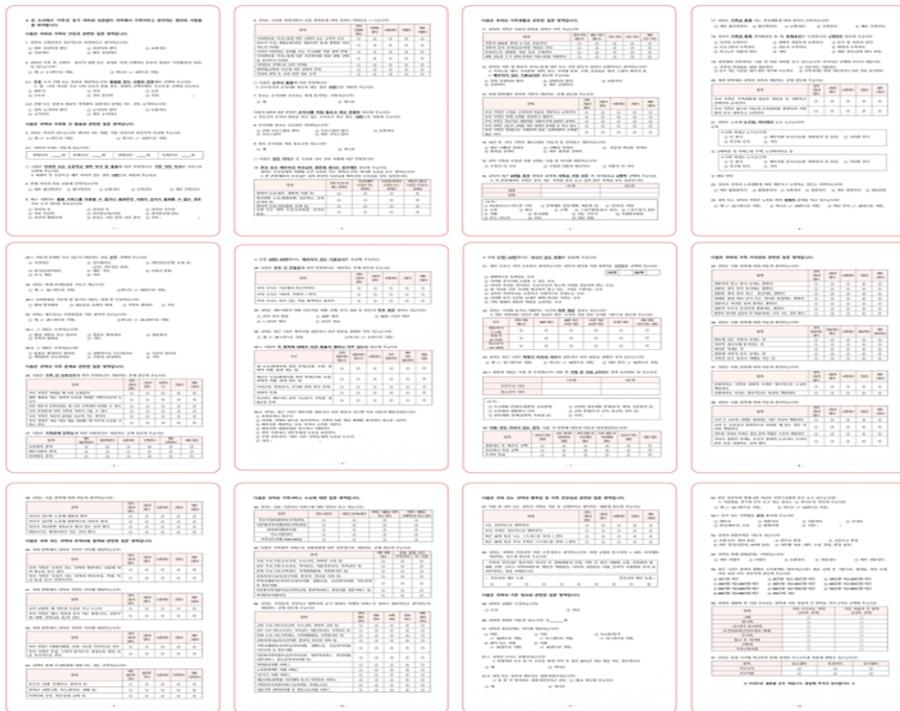
<표 6-4> 최종 설문지 영역 및 문항 내용

영역	문항 내용	문항 수
가족 정의	가족의 정의	1
신체적 건강	주관적 건강 인지, 돌봄 대상자 유무 및 심각도	2
가족 돌봄	자녀 돌봄(초등생 이하, 손자녀, 성인), 부모 돌봄, 양육 어려움 등	8

가족 생활	가사분담, 온라인 활용, 경제 상태 및 경제적 준비, 가족여가(활동, 의미, 장애요인 등), 노후생활 계획, 반려동물	15
가족 관계	상호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부부 관계(친밀감, 의사소통, 갈등 등), 부모자녀 관계(갈등, 의사결정 등)	9
가족 가치관	결혼 및 출산, 가족의례 및 문화, 성역할 태도, 부모부양 및 자녀양육, 자녀 가치관	5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참여, 이웃관계, 주거환경 만족도	4
가족서비스 수요	서비스/기관 인지도, 서비스 이용 경험, 개별 서비스 필요성	3
가족 행복감 및 건강성	개인 및 가족 행복, 개인 및 가족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및 연령, 거주지, 혼인 상태(혼인 여부, 맞벌이 여부, 다문화 여부), 가족 구성원, 경제 상태(주관적 경제 상태, 평균 월소득, 소득 및 지출 변화 등)	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영역은 2개 문항으로 주관적 신체 건강 인지와 돌봄 대상자의 유무와 건강 심각도를 포함하였다. 가족돌봄은 자녀연령별 돌봄 현황, 부모돌봄, 양육의 어려움으로 8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가족생활 영역은 15개 문항으로 가사분담, 가족의 온라인 활용, 경제상태 및 경제적 준비, 가족여가, 노후생활 계획 및 반려동물 관련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가족관계 영역은 상호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부부간 친밀감과 의사소통, 갈등을 살펴보고, 부모자녀관계는 갈등과 의사결정 영역을 포함하여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가치관 영역은 5개 문항으로 결혼 및 출산가치관, 가족의례 및 문화 관련 가치관, 성역할태도, 부

모부양 및 자녀양육관, 자녀가치관의 내용이였다. 지역사회 참여 영역은 4문항으로 지역사회 참여정도, 이웃관계, 주거환경만족도 문항이고, 가족 서비스 수요 영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인지도, 서비스 이용경험, 개별 프로그램(서비스) 필요 정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가족 행복감 및 가정의 건강성 영역은 2개 문항으로 개인과 가족의 행복감, 스트레스, 건강성 문항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영역은 9개 문항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 경제상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경제상태는 주관적 경제상태, 월 평균 소득, 지출의 변화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림 6-4〉 개발 설문지

본 연구에서 개발 최종 설문지를 가족실태조사와 비교한 결과는 <표 6-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족실태조사와 본 조사에서 개발된 설문지

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첫째, 가족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사 설문지는 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설문지는 가족센터 이용자 가족들의 가족생활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나 만족 정도, 새로운 사업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둘째, 조사 대상자와 목적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문지의 영역을 차별화하였다. 특히 가족실태조사에서 언급하거나 다른 문항들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최대한 중복성을 줄이고자 하였고 조사방법이나 활용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가족실태조사는 10개 영역의 89개 문항이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는 10개 영역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가족실태조사보다는 문항 수가 적어서 응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각 영역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역은 영역의 수는 1개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가족실태조사에서 포함하지 않은 신체·정신적 건강, 가족행복감, 가정의 건강성, 지역사회 참여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 차별화된 부분이다. 이는 본 설문지의 이론적 토대인 가족건강성, 생태체계론적 관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셋째, 개인 및 가구특성에서의 두 설문지에서 개인사항(성별, 연령, 학력), 주관적 경제상태, 가구 구성, 가족 소비 및 지출 규모 등은 유사문항이나 가족실태조사에서 포함한 주택 규모나 점유형태는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본 설문지에서는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변화 및 지출 항목별 규모와 부담 정도를 추가하여 가족의 경제상황이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본 설문지는 건강 영역을 포함하였고 가족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 영역에는 주관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 돌봄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가족돌봄 영역에서도 두 조사 설문지 모두 자녀유무를 파악하

고 있으며 자녀연령별 돌봄자에 대한 파악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가족실태조사는 가족돌봄자의 동거유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발된 설문지에서는 돌봄상황에 대한 만족도, 양육의 어려움, 손자녀돌봄 관련 문항,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지원정도를 통한 돌봄양상 등의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여섯째, 가족생활 영역은 두 설문지 모두 가족여가와 생애설계와 준비 등을 포함하는 문항으로의 공통점이 있으나 세부 문항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가족여가문항에서 가족실태조사 문항은 여가활동유형과 시간, 만족도를 포함하였으나 본 설문지를 이를 세분화하여 평일과 휴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대변화를 반영한 온라인 생활, 가족여가 관련 사항 등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생애설계와 노후준비에서도 미래 재무상태, 수입지출을 비교하는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최근의 가족트렌드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유무 등에 대한 문항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가사노동과 관련한 문항은 가족실태조사가 포함하고 있는 반면 본 설문지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실태조사 연구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 조사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곱째, 가족관계 영역은 두 조사 모두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있다. 가족실태조사에서 배우자 관계에서 다수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자녀연령별 양육문제, 자녀와의 관계, 의사결정, 관계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본 조사에는 가족전체의 상호지지가나 관계만족도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가족전체성을 볼 수 있는 문항이 차별화하여 포함되었고,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가족센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하여 부부와 부모자녀(자녀 연령별) 갈등과 해결방법, 미혼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사결정 방식)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실태조사에 양육과 성인자녀-부모간의 상호지원에 대한 부분은 본 설문지에서는 돌봄 영역의 문항으로 제시하여 가족관계 영역의 문항으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여덟째,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는 가족실태조사는 가족의 범위,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치, 부모부양 및 책임 등에 대한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반면 본 설문지의 가족가치관 영역의 문항은 가족가치관을 세분화하여 문항을 개발하여 결혼 및 출산, 가족문화(가족의례), 성역할, 부모자녀간 책임, 노후생활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파악하도록 개발하였다.

아홉째, 가족서비스 수요 및 정책영역에서 두 조사 설문지 모두에서 기관의 인식이나 인지도, 필요서비스, 정책은 유사하나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가족실태조사는 가족센터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경험,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족서비스 수요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설문지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을 세분화하여 인지도를 파악하는 문항, 현재 가족센터 주요사업 영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이용경험과 만족도, 필요도를 포함하는 문항, 본 설문지의 앞 영역에서 조사되는 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설문지는 가족센터 이용자 대상자들이 현재 가족센터 이용과 관련한 현황을 볼 수 있으며, 향후 가족센터에서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의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가족센터 사업에 대한 이용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문항으로 개발한 점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족실태조사는 가족 전체를 파악하는 질문이 가족건강성 한 문항이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에서는 가족건강성, 가족행복도, 가족스트레스 인지 정도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이용자 가족 전체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론적 관점인 가족건강성과 생태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가족실태조사와 차별화되는 문항이다.

또, 가족실태조사에서는 1인 가구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설문지는 1인 가구용 문항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각 영역별로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이 응답하도록 선택형을 제시하고 있어 별도의 내용으로 분리하지 않고 ‘해당없음’ 이나 해당하는 내용의 경로를 지정하여(예시 : 질문지에 ‘☞ \*\*\* 문항으로 이동’ 이라고 표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6-5> 가족실태조사와 가족생활변화 및 수요조사 설문지 비교

가족실태조사			설문지				
10개 영역, 89개 문항			10개 영역, 59개 문항				
영역	내용	문항 수	영역	내용	문항 수		
개인 관련 사항 및 가구특성	성별, 생일(나이), 학력 가정 건강성,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 가족 소득의 구성 및 규모, 가족 월평균 지출 규모, 주관적 경제적 상태	12	가족 정의	가족에 대한 정의	1		
			기본 정보	성별, 나이, 거주지, 혼인 여부 및 유형, 가족 구성, 학력, 주관적 경제 상태, 원평균 소득, 지출 항목별 규모 및 부담의 정도, 가구 소득 및 지출의 변화	2		
			신체적 건강	주관적 신체 건강, 간병/돌봄 필요 가구원 및 주 돌봄자	9		
			가족 행복감 및 건강성	행복감 및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2		
가족 형성과 변화	혼인 상태, 자녀 여부 및 계획	3	가족 돌봄	공통	자녀 여부	1	
가족 돌봄	공통	2인 이상 동거 여부 및 미취학 영유아 여부		1	초등 학생 이하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만족, 돌봄자, 양육 어려움	3
	취학 전 영유아	주중 낮 이용 기관 및 돌봄자,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3	손자녀	손자녀-조부모 동거 여부, 돌봄에 대한 부담감, 손자녀 돌봄 지속 의향	3

	초등학생	초등학생 여부, 방과후 돌봄 장소, 돌봄 부재 시간,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4		성인 자녀	부모자녀 간 도움	1
	함께 사는 가족	정기적/지속적 돌봄 필요 가족원 및 주 돌봄자	1				
가족 생활과 노후 준비	가사 참여와 가족 여가	가사노동 횟수 및 소요 시간, 가족 여가 활동, 가족 여가 시간, 가족 여가 시간의 만족도 및 이유	4	가족생활		온라인 교류, 부부 가사분담, 가족 경제 생활, 미래 재무 상태, 수입 지출 비교, 가족여가 활동, 가족여가 만족도, 가족 여가 장애요인, 가족여가의 의미, 노후 계획 및 실천, 노후 경제적 준비, 반려 동물 여부 및 계획, 가족생활 계획	15
	생애 설계와 노후 준비	생애 설계 준비 정도, 노후를 보내는 곳, 노후의 경제적 준비	3				
가족 관계	배우자 관계	동거 및 맞벌이 여부, 배우자와의 관계, 대화 시간 및 만족도, 가사분담 결정, 가사수행, 만 12세 미만 자녀 돌봄 활동, 의견 충돌 경험 및 이유, 이혼 및 헤어짐 고민, 문제 해결 방법, 전반적 만족도	10	가족 관계	공통	가족원 간 상호지지, 관계 만족도	2

	부모 자녀 관계	자녀 와의 관계 (부모 대상)	청소년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관계, 의사결정, 관계 만족도	4		부부	부부 친밀감, 부부 대화시간, 부부 갈등 여부 및 빈도, 해결방법	3	
			성인 자녀	자녀 정보(성별, 혼인 및 동거 여부), 부모 자녀 간 도움, 자녀와의 관계, 연락 빈도, 관계 만족도	5					
		부모 와의 관계 (자녀 대상)	청소년 자녀	부모 생존 여부, 부모와의 관계, 의사결정, 관계 만족도	4		부모 자녀	좋은 부모에 대한 정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녀와의 갈등 여부 및 이유, 미혼 성인자녀와의 의사결정	4	
			성인 자녀	부모 생존 여부, 연락 빈도, 부모와의 관계, 부모 자녀 간 도움, 부모님 생활비 마련 방법, 관계 만족도	6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의 범위 및 정의, 의지가 되는 사람, 삶의 방식과 가치관, 다양한 가족의례 및 문화, 가족 내 성역할, 부모 부양과 부모의 책임, 자녀와 자녀 양육, 가족에 대한 느낌, 주관적 계층				10	가족가치관	결혼 및 출산, 가족의례, 성역할, 부모자녀 간 책임, 노후생활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5

정책에 대한 인식	서비스/기관 인지도, 필요 서비스, 추진 필요 정책, 지원 필요 가족 형태, 정책 추진에 대한 동의	5	가족서비스 수요	기관/서비스 인지도,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3
일	일 여부, 고용 형태, 근로 시간, 일 및 일-생활 균형 관련 어려움	4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 주거환경 만족도	4
1인가구	1인가구 여부 및 기간, 1인가구 전 동거인, 1인가구 이유, 생활비 마련 방법, 지출 부담 항목, 주거 마련 방법, 가족 경제적 부담, 가족 돌봄,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문제/걱정거리 의논자, 이후 1인가구 지속 의향, 필요 정책	13	-		

#### (4) 시범조사 실시 및 2차 자문위원 검토

2차 자문은 개발된 설문지의 운영방안과 내용 보완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자문 내용은 개발된 설문지의 운영방안,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추가의견,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인원, 조사기간, 홍보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주기는 년 1회에서부터 3년 단위의 조사를 제안하였다. 가족관련 실태조사가 대부분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와 유사한 주기로의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 자문위원은 서울시의 “서울가족보고서”와 같이 1년 단위 조사를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가정의 가족생활을 보고하는 방식도 제안하였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온라인 조사를 제안하였고, 예산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면 오프라인 조사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조사기간은 2주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었다. 조사대상에서는 센터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우선적이지만 1인 가구가 가족정책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조사대상에 포함하며,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조사인원에 대해서는 개인 단위부터 가구 단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사운영에 있어서 자문위원들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본 조사를 위한 예산과 비용을 사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개발된 설문지에 대한 추가의견으로는 본 설문지를 1인 가구 대상으로 조사하게 될 경우, 질문 중 1인 가구가 ‘가족’의 범주를 이해함에 있어서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명료히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1인 가구의 세대별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내용(건강, 취업, 재무상태, 정서적 문제 등)을 추가하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또한, 본 설문지의 주된 대상이 센터 서비스 이용자인 만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

는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유형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특히 연령)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문항을 추가하여 관련이 적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문항의 경우 선별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본 설문지의 활용방안으로는 자문위원들은 일정 주기로 본 조사가 실시된다면 가족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고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보완하는데 활용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가족실태조사에서와 중복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특수성을 잘 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정책적인 반영보다는 서비스 개발 및 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 가족변화와 가족문제 등 가족생활과 관련한 영역별 서비스 수용을 파악하여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응답자 중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431명(51.87%), 센터 이용자 집단은 400명(48.13%)으로 총 831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 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수집된 센터 비이용자 그리고 센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센터 이용자를 구분하여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였다(<표 6-6> 참조). 센터 비이용자의 경우, 성별을 할당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남성 비율(49.19%)과 여성 비율(50.81%)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센터 이용자는 여성이 87.7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도 센터 비이용자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약 20% 정도로 비슷했으나, 센터 이용자는 40대가 44.11%로 가장 많고, 30대가 37.0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대나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혼인 상태를 보면, 센터 비이용자는 미(비)혼자가 35.03%, 기혼자가 59.86%인 것에 비해 센터 이용자는 미(비)혼자가 10.75%이며 기혼자가 78.5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기혼자 중 맞벌이 비율은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 42.47%, 이용자 집단에서 51.42%였고, 다문화가족 비율은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 1.91%, 이용자 집단에서 17.09%로 나왔다. 학력은 대졸자가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 65.43%, 이용자 집단에서 67.42%로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은 비이용자 집단에서 평균 6.45점(500만원~600만원 미만), 이용자 집단에서 평균 5.84점(400만원~500만원 미만)으로 이용자 집단이 약간 낮았다.

<표 6-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센터 이용자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

이 주를 이룬다. 센터의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조사할 때는 현행 서비스의 평가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나, 영유아기나 학령기를 자녀를 둔 가족이 아닌 대상자의 서비스 수요나 욕구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응답자의 구성 차이로 인해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표 6-6>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chi^2$ )
		n	%	n	%	
성별	남성	212	49.19	49	12.28	130.92***
	여성	219	50.81	350	87.72	
연령 (M=42.86 SD=11.84)	20대	84	19.49	30	7.52	150.05***
	30대	85	19.72	148	37.09	
	4대	87	20.19	176	44.11	
	50대	87	20.19	28	7.02	
	60대 이상	88	20.41	17	4.26	
	M(SD)	44.70(13.99)		40.88(8.52)		
혼인 상태	미혼	151	35.03	43	10.75	73.05***
	기혼	258	59.86	314	78.50	
	사실혼/동거	4	0.93	4	1.00	
	별거/이혼	15	3.48	28	7.00	
	사별	3	0.70	11	2.75	
부부 특성	맞벌이	111	42.47	163	51.42	4.71*
	결혼이민자	5	1.91	54	17.09	36.01***
학력	중졸 이하	1	0.23	10	2.50	20.39***
	고졸	103	23.90	60	15.04	
	대졸	282	65.43	269	67.42	
	대학원 이상	45	10.44	60	15.04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5	3.48	25	6.29	21.94*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8	6.50	38	9.57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71	16.47	60	15.11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64	14.85	67	16.88	
	400만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60	13.92	66	16.62	
	500만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54	12.53	51	12.85	
	600만원 이상 - 700만 원 미만	44	10.21	28	7.05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25	5.80	27	6.80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	3.71	13	3.27	
	900만원 이상	54	12.53	22	5.54	

\*  $p < .05$ , \*\*\*  $p < .001$

## 2) 신체적 건강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건강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주관적 신체건강에 대한 평균점은 3.43점(표준편차 0.86)으로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들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비이용자와 비교하여 센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신체건강 수준이 더 양호하였는데, 센터 비이용자는 ‘보통’의 수준에 보다 가까운 평균 3.30점, 센터 이용자들의 평균은 ‘보통’을 상회하나 ‘건강한 편이다’에는 미치지 못하는 3.6점이었다.

<표 6-7> 신체건강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전체	3.30	.82	3.57	.88	-4.59***

\*\*\*  $p < .001$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비이용자 중 약 20%에 달하는 응답자가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다고 답하였고, 센터 이용자 중에서는 약 15%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간병이나 돌봄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돌봄자와의 관계를 답하도록 함)이 누구인지 살펴본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비이용자의 경우 주 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부모(30.95%)’, ‘배우자(25%)’, ‘자녀(23.81%)’의 순으로 나타났고, 센터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자녀(27.12%)’, ‘부모(23.73%)’, ‘배우자(18.64%)’, ‘기타(18.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받는 가족원이 가진 질환이나 장애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센터 비이용자(평균 3.63점)와 이용자(평균 3.25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센터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장애나 질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센터 비이용자 집단 가족원의 장애, 질환 심각도가 더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

해 센터보다는 요양원, 병원 등 타 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8> 간병/돌봄 필요한 가족원 유무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예	84	19.5	59	14.8	3.27
아니오	347	80.5	341	85.3	

<표 6-9> 간병/돌봄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 / 질환 및 장애의 심각성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돌 봄 자	배우자	21	25.00	11	18.64	7.37
	자녀	20	23.81	16	27.12	
	부모	26	30.95	14	23.73	
	조부모	5	5.95	6	10.17	
	기타 친인척	3	3.57	1	1.69	
	기타	9	10.71	11	18.64	
질환/장애 심각성		M(SD)		M(SD)		<i>t</i>
		3.63(0.84)		3.25(0.90)		2.57*

\*  $p < .05$

### 3) 가족돌봄

자녀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녀 유무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센터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무자녀인 경우가 186명(43.16%)으로 센터 이용자 48명(12%)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녀의 수에 따른 분포에 있어서는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 모두 자녀가 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자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 집단 중 자녀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이는 센터 이용의 주된 동기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6-10> 자녀 유무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chi^2$
	n	%	n	%		
예	245	56.84	352	88.00	4.94	99.54***
첫째자녀	68	15.8	106	26.5		
둘째자녀	152	35.3	194	48.5		
셋째자녀	22	5.1	45	11.3		
넷째자녀 이상	3	0.7	7	1.8		
아니오	186	43.16	48	12.00		
전체	431	100	400	100	831(100%)	

\*\*\*  $p < .001$

현재의 자녀돌봄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평균 3.51점(표준편차 0.82)으로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센터 이용자들의 돌봄 만족도는 평균 3.51점으로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0.03점 높았다.

<표 6-11> 돌봄상황 만족도(5점 만점)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전체	3.48	0.80	3.51	0.82	-0.32

주 양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주 양육자가 부재할 경우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는 ‘자녀의 모(35.06%)’, ‘자녀의 조부모(33.77%)’, ‘돌보는 사람 없이 자녀 혼자(16.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는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이 ‘자녀의 조부모(35.44%)’였고, 이후로 ‘자녀의 모(27.72%)’,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11.23%)’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문항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자들 모두 주 돌봄자 부재 또는 주 돌봄시설 이용이 불가할 때 자녀돌봄을 거의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2> 주 양육시설 및 주 양육자 대신 돌보는 사람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자녀의 부	6	7.79	21	7.37	10.97
자녀의 모	27	35.06	79	27.72	
자녀의 조부모	26	33.77	101	35.44	
기타 친인척	0	0	6	2.11	
민간돌보미(시터)	0	0	2	0.70	
아이돌보미(정부)	0	0	10	3.51	
자녀의 형제자매	5	6.49	22	7.72	
돌보는 사람 없이 자녀 혼자	13	16.88	32	11.23	
기타	0	0	12	4.21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센터 비이용자 집단과 센터 이용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자녀 지도의 어려움’ 과 ‘자녀의 적응 관련 문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들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센터 이용자 집단에 비해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신체적/심리적 부담’, ‘시간관리 및 일-생활 균형’, ‘자녀돌봄 공백’, ‘경제적 부담’,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13> 자녀 양육 어려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신체적/심리적 부담	3.57	0.10	3.51	0.98	0.49
자녀 지도의 어려움	3.68	0.85	3.42	0.96	2.17*
자녀의 적응 관련 문제	3.07	0.92	2.77	1.01	2.34*
시간관리 및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3.39	0.98	3.42	1.02	-0.22
자녀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3.27	0.94	3.33	1.09	-0.41
경제적 문제	3.81	1.09	3.60	1.07	1.48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3.39	0.78	3.19	0.90	1.73
전체	3.45	0.71	3.32	0.75	1.39

p<.05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는지 살펴본 문항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와 센터 이용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돌보는 손자녀와 동거 여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예	10	40.0	24	38.1	.03
아니오	15	60.0	39	61.90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담감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평균 3.44점(표준편차 0.86)으로, ‘보통’을 다소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센터 이용자 집단에 비해 미미하게 낮은 평균점을 보이긴 하였으나(센터 비이용자 3.33점, 센터 이용자 3.56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6-15> 손자녀 돌봄 부담감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i>t</i>
	M	SD	M	SD	
전체	3.33	0.71	3.56	1.01	-0.54

조부모들에게 향후에도 손자녀 돌봄을 계속하고자 하는지 질문한 결과, 센터 비이용자 중 돌봄 지속 의향을 밝힌 비율이 높긴 하였으나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sup>2)</sup>

2) 또한 대상사의 수 자체가 적어 통계적 검증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주의를 요함

<표 6-16> 향후 손자녀 돌봄 희망 여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예	6	66.7	5	55.6	.23
아니오	3	33.3	4	44.4	

성인 자녀와 부모의 상호 교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간에 ‘일상생활’ 과 ‘부양 또는 양육’ 도움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도움’ 에 있어서는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은 상호교류 수준을 보였고, ‘부양 또는 양육 도움’ 에 있어서는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은 상호교류 수준을 보였다. ‘경제적/정서적 도움’ 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교류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7> 성인자녀와 부모 간 교류 정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i>t</i>
	M	SD	M	SD	
경제적 도움	2.26	1.07	2.16	1.12	1.26
일상생활 도움	2.02	1.02	1.78	0.97	2.27**
정서적 도움	2.43	1.17	2.43	1.18	-0.002
부양 또는 양육 도움	1.85	1.07	2.06	1.11	-2.51*
전체	2.09	0.81	2.08	0.78	0.24

\*  $p < .05$ , \*\*  $p < .01$

#### 4) 가족생활

SNS나 온라인을 통한 가정의 교류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온라인 쇼핑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의 경우 ‘SNS 소식 공유’, ‘가족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참여’, ‘온라인 쇼핑’,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등 모든 항목에서 교류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18> 가족 간 온라인 교류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가족의 SNS 소식 공유	2.75	1.21	2.99	1.18	-2.87**
가족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참여	1.53	0.86	1.82	1.05	-4.35***
온라인 쇼핑	3.60	1.01	3.94	1.02	-4.82***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3.17	1.11	3.67	1.13	-6.40***
전체	2.76	0.74	3.11	0.76	-6.55***

\*\*  $p < .01$ , \*\*\*  $p < .001$

기혼남녀의 경우, 가정에서 수행되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에 있어서 부부 간 분담의 공평성 인식에서 평균 2.99점(표준편차 0.99)으로 ‘보통’ 보다 낮게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19>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기혼남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전체	3.01	0.98	2.97	1.00	0.52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상태는 5점 척도에서 2.98점으로 나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센터 이용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6-20> 주관적 경제상태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M	SD	M	SD		
전체	3.02	0.75	2.95	0.76	2.98 (0.75)	1.27

가정 내 경제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비생활을 한다’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수입을 고려한 지출의 계획과 실천’, ‘일상적 생활비 지출의 충분함’, ‘긴급상태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있어서는 비이용자 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현재 부채상태 감당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용자 집단이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경제적 자원의 관리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수입을 고려한 지출	3.46	0.93	3.33	0.95	1.99*
부채로 인한 부담감	2.21	1.05	2.47	1.04	-3.50**
생활비 지출의 충분성	3.30	0.91	3.07	0.94	3.68**
위기 대비 경제적 준비	3.05	0.99	2.91	0.98	2.04*
환경을 생각한 소비생활	3.33	0.88	3.30	0.81	0.62
전체	3.07	0.51	3.01	0.46	1.71

\* $p<.05$ , \*\* $p<.01$

가장 많이 지출되는 생활비 영역은 ‘식비’로 나타났다. 기혼자가 대다수인 센터 이용자 집단의 경우, ‘자녀 사교육비’가 두 번째로 지출이 큰 항목이다. 미혼자와 기혼자가 같이 있는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는 ‘주거비’가 두 번째로 지출이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큰 생활비 영역도 지출이 큰 영역과 일치하였다.

<표 6-22> 생활비 부담이 큰 항목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가장 부담되는 항목	식비	148	34.34	136	34.87	52.46***
	외식비	36	8.35	40	10.26	
	(손)자녀 사교육비	43	9.98	102	26.15	
	보건의료비 (건강보험료 제외)	41	9.51	19	4.87	
	주거비	100	23.20	53	13.59	
	통신 및 여가비	16	3.71	15	3.85	
	교통비	5	1.16	4	1.03	
	기타 소비지출	42	9.74	21	5.38	

\*\*\* $p<.001$

<표 6-23> 생활비 지출이 큰 항목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가장 지출이 큰 항목	식비	163	37.82	164	41.94	32.69***
	외식비	33	7.66	34	8.70	
	(손)자녀 사교육비	42	9.74	77	19.69	
	보건의료비 (건강보험료 제외)	32	7.42	18	4.60	
	주거비	96	22.27	58	14.83	
	통신 및 여가비	16	3.71	18	4.60	
	교통비	8	1.86	2	0.51	
	기타 소비지출	41	9.51	20	5.12	

\*\*\*  $p < .001$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과 지출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 가구소득은 ‘변함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가구소득이 감소한 집단과 증가한 집단도 약 20~28%로 나타나 가구 간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구지출은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는 ‘변함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증가하였다’는 응답 순이었으나,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는 ‘가구지출이 증가’했다고 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고, ‘변함없다’는 응답 비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6-24>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지출 변화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가구소득	감소	97	22.51	79	19.75	5.78
	동일	243	56.38	208	52.00	
	증가	91	21.11	113	28.25	

가구지출	감소	22	5.10	11	2.75	25.25***
	동일	228	52.90	152	38.00	
	증가	181	42.00	237	59.25	

\*\*\*  $p < .001$

10년 후 가정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을 보면, 5점 척도에서 중간값인 3점이 ‘지금과 비슷하다’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인데,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은 3.36점(표준편차 0.82)으로 나타났고,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두 집단 모두 3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는데, 센터 이용자 집단의 경우 평균점이 3.45점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5> 향후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전체	3.29	0.81	3.45	0.83	-2.73**

\*\*  $p < .01$

현재 가정의 수입과 지출의 비교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센터 이용자는 ‘지출이 더 크다’는 응답이, 비이용자의 경우 ‘수입이 더 크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6> 가정의 수입과 지출 상태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수입이 더 크다	130	30.16	75	18.75	16.13***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	215	49.88	217	54.25	
지출이 더 크다	86	19.95	108	27.0	

\*\*\*  $p < .001$

최근 6개월 간 평일 가족과 함께 한 여가활동 1순위에서는 두 집단 모두 ‘TV, 유튜브, 스마트폰 시청’이 1순위로 나타났는데, 응답 분포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일 2순위 여가활동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의 경우 ‘외식’, ‘산책’의 순서로, 비이용자의 경우 ‘산책’, ‘외식’의 순서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6-27> 평일 가족 여가 활동 1순위(최근 6개월)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TV/유튜브/ 스마트폰 시청	191	46.14	143	38.13	18.89
문화예술 감상	15	3.62	17	4.53	
(온라인) 게임	2	0.48	5	1.33	
쇼핑	17	4.11	12	3.20	
외식	84	20.29	70	18.67	
산책	54	13.04	57	15.20	
스포츠 활동	7	1.69	14	3.73	
스포츠경기 관람	0	0	0	0	

여행	21	5.07	28	7.47
종교생활	13	3.14	15	4.00
텃밭 가꾸기	6	1.45	2	0.53
자원봉사활동	0	0	1	0.27
친구 만나기	3	0.72	10	2.67
기타	1	0.24	1	0.27

<표 6-28> 평일 가족 여가 활동 2순위(최근 6개월)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TV/유튜브/ 스마트폰 시청	48	11.59	57	15.36	28.40**
문화예술 감상	30	7.25	18	4.85	
(온라인) 게임	13	3.14	24	6.47	
쇼핑	69	16.67	30	8.09	
외식	81	19.57	66	17.79	
산책	82	19.81	65	17.52	
스포츠 활동	15	3.62	13	3.50	
스포츠경기 관람	4	0.97	3	0.81	
여행	30	7.25	39	10.51	
종교생활	16	3.86	19	5.12	
텃밭 가꾸기	6	1.45	5	1.35	
자원봉사활동	1	0.24	2	0.54	
친구 만나기	9	2.17	16	4.34	
기타	10	2.42	14	3.77	

\*\* $p < .01$

휴일 1순위 가족여가활동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휴일에도 1순위 가족여가활동은 ‘TV, 유튜브 스마트폰 시청’으로 나타났다. 비이용자 집단은 그 다음이 ‘외식’, ‘산책’, ‘여행’ 순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집단은 ‘외식’, ‘여행’, ‘산책’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 2순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외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비이용자 집단은 ‘산책’, ‘쇼핑’의 순으로, 이용자 집단은 ‘산책’, ‘여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9> 휴일 가족 여가 활동 1순위(최근 6개월)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TV/유튜브/ 스마트폰 시청	114	27.60	91	24.07	22.77*
문화예술 감상	17	4.12	23	6.08	
(온라인) 게임	6	1.45	2	0.53	
쇼핑	28	6.78	21	5.56	
외식	97	23.49	65	17.20	
산책	57	13.80	58	15.34	
스포츠 활동	19	4.60	14	3.70	
스포츠경기 관람	0	0	0	0	
여행	38	9.20	59	15.61	
종교생활	21	5.08	27	7.14	
텃밭 가꾸기	6	1.45	1	0.26	
자원봉사활동	1	0.24	2	0.53	
친구 만나기	6	0.73	10	2.65	
기타	3	0.73	5	1.32	

\* $p < .05$

<표 6-30> 휴일 가족 여가 활동 2순위(최근 6개월)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TV/유튜브/ 스마트폰 시청	48	11.62	30	7.96	27.22*
문화예술 감상	17	4.12	29	7.69	
(온라인) 게임	14	3.39	9	2.39	
쇼핑	65	15.74	38	10.08	
외식	89	21.55	71	18.83	
산책	78	18.89	67	17.77	
스포츠 활동	13	3.15	25	6.63	
스포츠경기 관람	4	0.97	1	0.27	
여행	34	8.23	49	13.00	
종교생활	17	4.12	18	4.77	
텃밭 가꾸기	8	1.94	5	1.33	
자원봉사활동	1	0.24	2	0.53	
친구 만나기	13	3.15	18	4.77	
기타	12	2.91	15	3.98	

\* $p < .05$

가족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의 평균값은 3.47점(표준편차 0.85)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모두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31> 가족여가생활 만족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전체	3.45	0.78	3.48	0.91	-0.55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에 있어서 장애요인 1순위는 두 집단 모두 ‘시간부족’ > ‘경제적 부족’ > ‘체력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생활의 장애요인 2순위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32> 가족여가생활 장애요인(1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시간부족	146	33.87	147	36.75	18.08*
경제적 부족	133	30.86	128	32.00	
함께 할 사람 부족	8	1.86	8	2.00	
프로그램 부족	17	3.94	19	4.75	
정보 부족	19	4.41	18	4.50	
체력 부족	52	12.06	48	12.00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17	3.94	5	1.25	
기타	3	0.70	11	2.75	
해당 없음 (장애 없음 포함)	36	8.35	16	4.00	

\*  $p < .05$

<표 6-33> 가족여가생활 장애요인(2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시간부족	68	15.78	73	18.25	11.39
경제적 부족	81	18.79	79	19.75	
함께 할 사람 부족	20	4.64	20	5.00	
프로그램 부족	43	9.98	34	8.50	
정보 부족	45	10.44	45	11.25	
체력 부족	100	23.20	94	23.50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	26	6.03	10	2.50	
기타	12	2.78	20	5.00	
해당 없음 (장애 없음 포함)	36	8.35	25	6.25	

가족여가가 갖는 의미로는 두 집단 모두 ‘가족의 친밀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6-34> 가족여가의 의미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가족의 친밀감을 위해 필요하다	275	63.81	274	39.02	6.72
자발적인 기쁨이다	86	19.95	82	20.65	
의무와 부담이다	52	19.95	28	7.05	
가족여가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한다	18	4.18	13	3.27	

가정생활설계와 관련하여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에 대한 계획과 준비 (가정생활의 계획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와 관련된 가족의 계획과 실천, 두 항목 모두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센터 이용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35> 가정생활설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가정생활 계획성	3.31	0.79	3.45	0.77	-2.52*
가정생활 실천성	3.22	0.89	3.38	0.90	-2.45*
전체	3.27	0.78	3.41	0.78	-2.66**

\*  $p < .05$ , \*\*  $p < .01$

노후에 누구와,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와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유형(집 vs.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표 6-36>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chi^2$
	n	%	n	%		
집						2.33
나 혼자	54	15.47	42	12.77	4.55	
배우자와 함께	266	76.22	246	74.77		

자녀와 함께	13	3.72	20	6.08			
친구와 함께	12	3.44	13	3.95			
기타	4	1.15	8	2.43			
서비스형 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나 혼자	17	23.94	9	14.52	5.46		
배우자와 함께	41	57.75	43	69.35			
자녀와 함께	1	1.41	3	4.84			
친구와 함께	10	14.08	7	11.29			
기타	2	2.82	0	0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과 실천정도에 있어서 응답자 전체 평균은 2.86점(표준편차 0.97)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센터 이용자의 경우 노후생활 계획과 실천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6-37> 노후생활 계획 및 실천정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i>t</i>
	M	SD	M	SD	
노후계획 및 실천	2.96	1.03	2.75	0.88	3.21**

\*\* $p < .01$

두 집단 모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안 하고 있는 비율보다 높는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센터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모두 ‘국민연금’이 1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기타의

노후준비방식에 있어서는 세부항목별 응답률에 집단 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6-38>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여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chi^2$
		n	%	n	%		
예		239	56.77	209	51.94	24.41*	1.90
노 후 준 비	국민연금	181	23.40	152	26.50		
	공무원연금	43	5.6	33	5.8		
	개인연금	143	18.50	104	18.20		
	퇴직금/퇴직연금	77	10.00	51	8.90		
	예금, 적금	152	19.70	117	20.40		
	부동산 운용	68	8.80	59	10.30		
	주식, 채권	100	13.00	47	8.20		
	기타	8	1.00	10	1.70		
아니오		182	43.23	186	48.06		

\*\* $p < .01$

응답자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비율은 센터 이용자의 경우 16.25%, 비이용자의 경우 22.04%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그 이유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센터 이용자의 경우 ‘가족이 원해서’, 비이용자의 경우 ‘원래 좋아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표 6-39> 반려동물 유무와 이유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chi^2$
		n	%	n	%		
있음		95	22.04	65	16.25		
이 유	원래 좋아해서	44	10.22	20	5.00	9.61 *	4.48 *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8	1.86	4	1.00		
	가족이 원해서	37	8.58	34	8.50		
	기타	6	1.39	8	2.00		
없음		336	77.96	335	83.75		

\*  $p < .05$

향후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에서 두 집단 모두 ‘기르고 싶다’는 응답이 ‘기르고 싶지 않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비이용자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르고 싶은 이유는 두 집단 모두 ‘동물을 좋아해서’가 1순위로 나타났는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 ‘책임감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고, 세부항목별 응답률을 보면 두 집단 간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표 6-40> 앞으로 반려동물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생각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chi^2$
		n	%	n	%		
예		150	34.80	92	22.67		14.78**
	원래 계획하고 있어서	11	7.33	8	8.89	6.95	*

이 유	동물을 좋아해서	98	65.33	45	50.00	
	외로워서	7	4.67	9	10.00	
	가족이 원해서	26	17.33	19	21.11	
	기타	8	5.33	9	10.00	
아니오		281	65.20	307	77.33	
이 유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62	22.06	64	21.12	11.86*
	경제적 부담	51	18.15	58	19.14	
	시간 부족	4	1.42	20	6.60	
	책임감이 부담	132	46.98	121	39.93	
	가족의 반대	11	3.91	12	3.96	
	기타	21	7.47	28	9.24	

\*  $p < .05$ , \*\*\*  $p < .001$

## 5) 가족관계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간의 상호지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표 6-39>과 같이 나타났다. 관련 문항들의 총합으로 살펴본 전체 평균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 집단과 센터 이용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이용자 집단은 가족지지 전체 평균이 3.71점이었고 센터 이용자 집단은 3.89점으로 이용자 집단이 가족 간의 상호 지지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6개의 세부 문항 모두에 있어서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보다 정서적 도움과 지지 정도가 크고, 가족끼리 어려울 때 의지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상호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6-41> 가족 간 상호지지 정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움	3.86	0.79	4.01	0.72	-2.97**
정서적 도움과 지지 얻음	3.63	0.94	3.81	0.92	-2.77**
잘못되었을 때 의지할 수 있음	3.76	0.91	3.92	0.85	-2.47*
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음	3.68	0.93	3.89	0.88	-3.22**
서로 감정을 보살펴 줌	3.56	0.94	3.77	0.88	-3.20**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줌	3.79	0.88	3.96	0.82	-2.90**
전체	3.71	0.79	3.89	0.75	-3.33** *

\*  $p < .05$ , \*\*  $p < .01$ , \*\*\*  $p < .001$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각각이 중간점인 3점을 상회하여 가족간의 관계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위체계별 관계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센터 이용집단의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가 비이용자 집단의 부모자녀관계보다 만족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원가정 부모와 응답자와의 관계는 비슷한 수준의 평균(비이용자 M=3.83, 이용자 M=3.82)을 보였으나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비이용자 집단이(M=3.81)이 이용자 집단(M=3.68)보다 높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용자 집단(M=4.13)이 비이용자 집단(M=3.97)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표 6-42> 가족관계 만족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부모와의 관계	3.83	1.01	3.82	0.95	0.10
배우자와의 관계	3.81	1.00	3.68	1.09	1.64
자녀와의 관계	3.97	0.83	4.13	0.74	-2.50*
전체	3.81	0.74	3.87	0.74	-0.84

\*  $p < .05$

기혼 부부들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관계만족도 친밀감과 헌신 정도, 함께하는 정도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 집단과 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평균점을 살펴보면 중간점인 3점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의 부부관계에 만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43> 부부 간 친밀감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M	SD	M	SD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적이다	3.37	0.97	3.34	0.98	0.37
우리 부부는 서로를 가깝게 느낀다	3.58	0.96	3.59	1.01	-0.18
우리 부부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	3.52	0.96	3.52	1.03	-0.08
전체	3.49	0.89	3.48	0.94	0.04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화시간의 구간별 경향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1일 평균 ‘30분 이내’의 대화시간 응답이 30.92%로 가장 높았으나, 이용자 집단은 ‘30분 이상-1시간 이내’가 34.28%로 가장 높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변인을 고려한 추가적 분석을 통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6-44>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전혀 하지 않음	7	2.67	10	3.14	4.33
30분 미만	81	30.92	97	30.50	
30분 이상~1시간 미만	73	27.86	109	34.28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57	21.76	52	16.35	
2시간 이상	44	16.79	50	15.72	

기혼 부부들의 갈등 정도와 요인, 갈등대처양식을 살펴본 결과 <표 6-45>과 같이 나타났다. 갈등 여부, 갈등원인, 갈등대처양식에 있어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먼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센터 비이용자는 65.65%였고, 센터 이용자는 71.61%로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개인적인 요인인 ‘부부 서로 성격, 가치관, 생활습관의 차이’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을 보였다. 집단 간 차이는 없었지만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이용자 집단보다 높았고, ‘가사’와 ‘자녀양육문제’를 갈등요인을 응답한 정도는 이용자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갈등대처양식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항목들 중 주로 사용하는 대처양식 1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대화하기’ 라고 응답한 비율이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비이용자 집단에서는 ‘침묵하기’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 있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부부문제나 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6-45> 배우자와의 갈등요인 및 갈등대처양식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chi^2)$	$\chi^2$
		n/M	%/SD	n/M	%/SD		
예		172	65.65	227	71.61		2.38
갈등 원인	나의 가족 관련 문제	2.52	0.97	2.42	0.92	0.99	
	배우자의 가족 관련 문제	2.64	1.03	2.59	0.91	0.51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문제	3.03	0.98	3.11	0.95	-0.75	
	경제적 문제	3.02	0.96	2.97	0.95	0.50	
	서로의 성격, 가치관, 생활습관 차이	3.56	0.82	3.43	0.92	1.52	
갈등 대처 양식	침묵하거나 참기	65	37.79	68	30.49	10.11	
	자리 회피, 화제돌리기	33	19.19	29	13.00		
	비방하는 말하거나 소리지르기	17	9.88	29	13.00		
	대화하기	53	30.81	90	40.36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요청	1	0.58	0	0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받기	3	1.74	5	2.24		
	기타	0	0	2	0.90		
아니오		90	34.35	90	28.39		

\*  $p < .05$ , \*\*  $p < .01$ , \*\*\*  $p < .001$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상에 대해 1순위, 2순위를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로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모두에서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를 좋은 부모로 꼽았다. 1순위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좋은 부모상 2순위에서는 두 집단 간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21.22%)’,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부모(18.78)’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24.71%)’,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23.56%)’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6-46> 좋은 부모에 대한 생각(1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	46	18.78	57	16.38	3.83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	95	38.78	148	42.53	
자녀의 독립을 중시하는 부모	44	17.96	51	14.66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부모	22	8.98	39	11.21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모	5	2.04	6	1.72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	25	10.20	40	11.49
가정에서 평등한 역할을 실천하는 부모	8	3.27	7	2.01

<표 6-47> 좋은 부모에 대한 생각(2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	36	14.69	36	10.34	18.00* *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	52	21.22	82	23.56	
자녀의 독립을 중시하는 부모	33	13.47	46	13.22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부모	46	18.78	63	18.10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모	24	9.80	12	3.45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	38	15.51	86	24.71	
가정에서 평등한 역할을 실천하는 부모	16	6.53	23	6.61	

\*  $p < .05$ , \*\*  $p < .01$ , \*\*\*  $p < .001$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연령별 일평균 함께 보내는 시간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 6-48>과 같고, 이용자와 비이용자 집단 간 자녀연령별 함께 하는 시간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유아기 자녀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2시간 이상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의 비율이 각각 40.48%(비이용자 집단), 60.26%(이용자 집단)로 많았

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30분 미만’ 이거나 ‘30분 미만-1시간 미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커지면서 자녀의 성장하면서 돌봄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30분 미만’ 이 각각 21.28%, 33.80%를, ‘30분 이상-1시간 미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04%, 32.39%를 차지하여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은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8> 자녀와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t( $\chi^2$ )
		n	%	n	%	
영유아기	전혀 하지 않음	0	0.00	0	0.00	-1.82
	30분 미만	2	4.76	7	4.49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1	26.19	27	17.3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2	28.57	28	17.95	
	2시간 이상	17	40.48	94	60.26	
	전체	42	100.00	156	100.00	
아동기	전혀 하지 않음	0	0.00	1	0.50	0.69
	30분 미만	2	4.17	12	6.0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0	20.83	46	23.1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6	33.33	63	31.66	
	2시간 이상	20	41.67	77	38.69	
	전체	48	100.00	199	100.00	

			0		0	
청소년기	전혀 하지 않음	2	4.26	3	4.23	0.99
	30분 미만	10	21.28	24	33.80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6	34.04	23	32.39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3	26.66	10	14.08	
	2시간 이상	6	12.77	11	15.49	
	전체	47	100.0 0	71	100.0 0	

학령기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와 의견 충돌경험 여부를 파악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50%(비이용자 집단: 58.89%, 이용자 집단: 62.88%)가 자녀와의 의견충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49> 학령기 이상의 자녀와 의견 충돌 여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예	53	58.89	144	62.88	0.43
아니오	37	41.11	85	37.12	
전체	90	100.00	229	100.00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선택한 응답들을 살펴본 결과는 <표 6-50>, <표 6-51>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자녀의 ‘일상생활 문제’가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센터 비이용자 집단: 62.07%, 이용자 집단: 53.54%). 의견충돌 원인의 2순위를 선택하게 한 문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교육문제’로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34.48%, 이용자 집단이 32.80%를 차지

하였다.

<표 6-50> 초등학교 학생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1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학교생활 문제	2	6.90	14	11.02	4.0
일상생활 문제	18	62.07	68	53.54	
부모와의 생활양식차이	3	10.34	9	7.09	
교육문제	2	6.90	25	19.69	
정서·행동문제	3	10.34	9	7.09	
기타	1	3.45	2	1.57	
전체	29	100.00	127	100.00	

<표 6-51> 초등학교 학생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2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학교생활 문제	0	0.00	8	6.40	2.81
일상생활 문제	7	24.14	34	27.20	
부모와의 생활양식차이	6	20.69	19	15.20	
교육문제	10	34.48	41	32.80	
정서·행동문제	5	17.24	21	16.80	
기타	1	3.45	2	1.60	
전체	29	100.00	125	100.00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표 6-52>, <표 6-53>과 같이 나타났다. 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의견충돌은 ‘일상생활 문제’가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센터 비이용자 집단: 37.50%, 이용자 집단: 51.06%). 2순위 의견충돌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교육문제’로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31.25%, 이용자 집단이 31.91%의 응답률을 보였다.

학령기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은 존재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문제’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 정도와 통제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로 인한 갈등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모교육 또는 부모-자녀 관계 관련 프로그램의 주제로 이러한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다.

<표 6-52>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1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학교생활 문제	4	12.50	3	6.38	4.29
일상생활 문제	12	37.50	24	51.06	
부모와의 생활양식차이	4	12.50	2	4.26	
교육문제	9	28.13	15	31.91	
정서·행동문제	1	3.13	2	4.26	
기타	2	6.25	1	2.13	
전체	32	100.00	47	100.00	

<표 6-53>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의견 충돌 이유(2순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학교생활 문제	2	6.25	5	10.64	0.79
일상생활 문제	8	25.00	9	19.15	
부모와의 생활양식차이	6	18.75	9	19.15	
교육문제	10	31.25	15	31.91	
정서·행동문제	5	15.63	7	14.89	
기타	1	3.13	2	4.26	
전체	32	100.00	47	100.00	

\*  $p < .05$ , \*\*  $p < .01$ , \*\*\*  $p < .001$

성인 자녀가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결과, <표 6-54>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센터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에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여부의 항목에서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는 ‘부모 자녀 간 협의’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51.16%). 반면 비이용자 집단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0.35%). 전공이나 직업선택의 영역과 주거지 독립 영역에서 두 집단 모두에서 ‘부모-자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센터 비이용자 집단: 46.34%, 이용자 집단: 54.17%).

<표 6-54> 미혼 성인자녀의 의사결정 유형

			자녀 단독	부모 자녀 협약	자녀가 통보	부모가 통보	부모 단독	전체
결혼 및 배우자 선택	센터 비이용자	n	23	43	46	2	0	114
		%	20.18	37.72	40.35	1.75	0.00	100.0 0
	센터 이용자	n	9	22	12	0	0	43
		%	20.93	51.16	27.91	0.00	0.00	100.0 0
	$\chi^2$		3.43					
전공/ 직업 선택	센터 비이용자	n	29	57	33	3	1	123
		%	23.58	46.34	26.83	2.44	0.81	100.0 0
	센터 이용자	n	16	26	6	0	0	48
		%	33.33	54.17	12.50	0.00	0.00	100.0 0
	$\chi^2$		6.35					
주거지 독립	센터 비이용자	n	23	65	26	3	1	118
		%	19.49	55.08	22.03	2.54	0.85	100.0 0
	센터 이용자	n	11	29	5	0	0	45
		%	24.44	64.44	11.11	0.00	0.00	100.0 0
	$\chi^2$		4.45					

## 6) 가족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결혼 및 출산, 가족의례, 성역할, 부모의 책임, 자녀의 가치 등 크게 5개 영역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표 6-55>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 는 인식은 평균 3.4 점,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 는 인식은 평균 3.31점, “결혼한 부부가 합의하여 줄혼해도 괜찮다” 는 인식은 평균 3.28점, “미래를 위해 미리 난자나 정자를 동결해도 괜찮다” 는 인식은 3.15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결혼생각 없이 동거해도 괜찮다” 는 인식은 2.96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며, “결혼할 생각 없이 임신·출산해도 괜찮다” 는 인식은 2.05점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비혼독신과 줄혼에 대한 것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태도가 조금 더 높았다.

<표 6-55>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인식(가족가치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M(SD)	t
	M	SD	M	SD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	3.31	1.11	3.50	1.17	3.40 (1.15)	-2.43*
결혼할 생각이 없어도 동거해도 괜찮다	2.99	1.19	2.92	1.24	2.96 (1.21)	0.73
결혼할 생각 없이 임신·출산해도 괜찮다	2.04	1.11	2.05	1.12	2.05 (1.12)	-.05
미래를 위해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해도 괜찮다	3.19	1.13	3.10	1.24	3.15 (1.18)	1.10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	3.28	1.19	3.35	1.20	3.31 (1.19)	-.82

결혼한 부부가 합의하여 졸혼해도 괜찮다	3.14	1.19	3.43	1.19	3.28 (1.20)	-3.52** *
--------------------------	------	------	------	------	----------------	--------------

$p < .05$ , \*\* $p < .001$

가족의례는 전통적 의례와 비전통적 의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함께 휴가나 여행을 가는 것’으로 평균 3.75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생일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것(3.44점)’, ‘친인척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3.31점)’,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것(3.20점)’, ‘제사를 지내는 것(2.43점)’의 순으로 중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통적 의례인 제사나 명절에 모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6-56> 가족의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i>t</i>
	M	SD	M	SD	M(SD)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것	3.25	1.00	3.14	1.03	3.20 (1.01)	1.57
친인척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	3.33	0.93	3.30	0.87	3.31 (0.91)	0.55
제사를 지내는 것	2.46	1.16	2.39	1.11	2.43 (1.13)	0.90
생일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것	3.39	1.01	3.49	0.90	3.44 (0.96)	-1.54
가족이 함께 휴가나 여행을 가는 것	3.66	0.90	3.85	0.81	3.75 (0.86)	-3.24*

\*  $p < .05$

전통적 성역할은 맞벌이인 경우 ‘남성의 부양책임’ 과 ‘여성의 가사 책임’ 에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둘 다 평균이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남성의 부양책임에 동의하는 정도(2.79점)가 여성의 가사책임에 동의하는 정도(2.42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6-57> 성역할 가치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M	SD	M	SD	M(SD)	
맞벌이여도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남성의 책임이다	2.94	1.11	2.63	1.06	2.79 (1.10)	4.07***
맞벌이여도 가사는 일차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다	2.48	0.99	2.35	0.99	2.42 (0.99)	1.86

\*\*\*  $p < .001$

부모-자녀 간 책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나이 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다’ 에 동의하는 정도는 평균 3.43점, ‘나이 든 부모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다’ 에 동의하는 정도는 2.68점으로 노부모가 독립적 거취를 결정하되, 자녀의 역할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 자녀의 학비나 취업 준비 지원은 부모의 책임이다’ 에 동의하는 정도는 3.21점이고,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가 경제적 도움이나 손자녀 돌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에 동의하는 정도는 2.89점으로 ‘보통’ 보다 동의 수준이 낮았다.

<표 6-58> 부모-자녀 간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M	SD	M	SD	M(SD)	
노부모의 거취에 대한 자녀의 책임	2.83	1.01	2.50	0.94	2.68 (0.99)	4.80***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녀의 책임	3.59	0.88	3.27	1.01	3.43 (0.96)	4.91***
자녀의 학비나 취업준비 지원에 대한 부모의 책임	3.31	0.89	3.11	0.93	3.21 (0.92)	3.33***
자녀가 결혼한 이후의 부모의 도움 필요성	2.97	0.89	2.81	0.91	2.89 (0.90)	2.60***

\*\*\*  $p < .001$

자녀에 대한 인식은 정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성별 선호, 형제자매, 성인자녀 주거독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외동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좋다’로 평균 3.84점이었다. ‘형편이 된다면 성인이 된 미혼자녀는 따로 사는 것이 좋다’에 동의하는 정도도 3.73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동의가 있었다. ‘자녀가 하나라면 아들보다 딸이 있는 것이 좋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는 3.20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는 3.37점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2.91점보다 높아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9> 자녀 가치관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	---------	--------	----	---

	M	SD	M	SD	M(SD)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외롭지 않다	3.46	0.98	3.27	0.95	3.37 (0.97)	2.85**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가 된다	3.06	0.97	2.75	0.93	2.91 (0.97)	4.70** *
자녀가 하나라면 아들보다 딸이 있는 것이 좋다	3.27	1.06	3.12	1.18	3.20 (1.12)	1.92
외동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좋다	3.87	0.91	3.80	1.02	3.84 (0.96)	1.08
형편이 된다면 성인 미혼자녀는 따로 사는 것이 좋다	3.75	.99	3.72	1.01	3.73 (1.00)	0.37

\*\*  $p < .01$ , \*\*\*  $p < .001$

## 7) 지역사회참여

응답 가정의 지역사회 상황과 현안에 대한 관심에서 두 집단 모두 ‘보통’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관심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화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센터 이용자의 경우 투표나 지역축제, 지역의 특성 등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0> 가정의 지역사회 관심과 대화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M	SD	M	SD	M(SD)	
가정의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관심	3.43	0.83	3.52	0.77	3.47 (0.80)	-1.60
가정의 지역의 현안에 대한 대화	3.29	0.94	3.52	0.85	3.40 (0.90)	-3.73** *

\*\*\*  $p < .001$

이웃과의 교류는 센터 이용자의 경우 ‘보통’ 수준, 비이용자의 경우 ‘보통’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급한 상황에서 이웃과 도움을 주고받는 교류’, ‘평소 만남이나 공동구매, 대화, 친목교류 등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 에서 센터 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1> 이웃과의 교류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M	SD	M	SD	M(SD)	
급한 상황일 때 이웃과의 도움 여부	2.85	1.04	3.10	1.05	2.97 (1.05)	-3.45** *
평소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 여부	2.74	1.05	3.00	1.11	2.87 (1.09)	-3.49** *

\*\*\*  $p < .001$

시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실천 활동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자원봉사활동이나 후원, 기부 활동’ 보다는 ‘투표, 분리수거, 환

경보호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더 높다. 자원봉사 등에서는 센터 이용자가 비이용자 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62> 지역사회 참여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M	SD	M	SD	M(SD)	
자원봉사활동, 후원, 기부 참여	2.58	0.98	2.86	1.03	2.72 (1.01)	-4.05***
투표, 분리수거, 환경보호 활동 참여	3.70	0.94	3.70	0.88	3.70 (0.92)	-0.02

\*\*\*  $p < .001$

주거환경 만족도와 관련하여 공원이나 문화시설, 관공서 등에 대한 ‘접근성’, 대중교통이나 마트/편의점, 병원 등의 ‘편의성’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방범상태’ 등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보통’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다. 접근성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고, 편의성과 안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센터 이용자 집단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3> 주거환경 만족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t
	M	SD	M	SD	M(SD)	
접근성	3.54	0.91	3.44	0.95	3.49 (0.93)	1.51
편의성	3.69	0.91	3.39	1.04	3.54 (0.99)	4.53***
지역사회안전	3.63	0.81	3.51	0.88	3.57 (0.85)	2.15*

\*  $p < .05$ , \*\*\*  $p < .001$

## 8) 가족서비스 수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전달체계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64>에 나타나 있다. 센터 비이용자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혀 모르거나 명칭 정도만 안다’는 응답자들이 75.64%로 2/3정도가 여전히 센터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비이용자들의 68.68%가 ‘알지 못하고 명칭만 인지하는 정도’라고 응답하였고, 이용자의 경우도 21% 정도가 ‘전혀 모르거나 이름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경우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인지도가 낮았는데 센터 비이용자의 경우 ‘전혀 모르거나 이름만 아는’ 경우가 89.56%에 해당하며 센터 이용자의 경우 76.50%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누리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센터 비이용자의 경우 43.85%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였고 40.60%가 ‘이름만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일반인들에게 해당 센터가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으로 24.0% 정도만이 ‘센터의 기능을 조금 알거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여서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상담전화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비이용자들은 ‘전혀 모름’ 35.27%, ‘이름만 알고 있음’ 47.80%, 그리고 ‘내용을 대략 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16.93%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용자의 경우 ‘전혀 모름’이 31.50%, ‘이름만 알고 있음’이 40.25%였고 ‘내용을 대략 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이 21.00%로 나타나 비이용자 집단보다는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센터 비이용자들은 제시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4 정도를 차지하

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나 ‘타 기관’ 에서 이용 비율이 5% 이내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반면 센터 이용자의 경우 제시한 자신의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대부분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4>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n	%	n	%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전혀 모름	137	31.79	21	5.25	301.79***
	이름만 들어봄	189	43.85	53	13.25	
	내용을 대략 알고 있음	93	21.58	181	45.25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12	2.78	145	36.25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전혀 모름	40	9.28	14	3.50	211.79***
	이름만 들어봄	256	59.40	71	17.75	
	내용을 대략 알고 있음	115	26.68	188	47.00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20	4.64	127	31.75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전혀 모름	269	62.41	205	51.25	28.18((3))* **
	이름만 들어봄	117	27.15	101	25.25	
	내용을 대략 알고 있음	40	9.28	73	18.25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5	1.16	21	5.25	
다누리	전혀 모름	189	43.85	163	40.75	12.28**

콜센터	이름만 들어봄	175	40.60	141	35.25	17.51**
	내용을 대략 알고 있음	58	13.46	73	18.25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9	2.09	23	5.75	
가족 상담 전화	전혀 모름	152	35.27	126	31.50	
	이름만 들어봄	206	47.80	161	40.25	
	내용을 대략 알고 있음	61	14.15	84	21.00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12	2.78	29	7.25	

\*\* $p < .01$ , \*\*\* $p < .001$

<표 6-65> 가족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chi^2$
	경험 없음	가족 센터	타기관	경험 없음	가족 센터	타기관	
	n(%)	n(%)	n(%)	n(%)	n(%)	n(%)	
교육 프로그램	378 (87.70)	32 (7.42)	21 (4.87)	135 (33.83)	206 (51.63)	58 (14.54)	258.80** *
상담 프로그램	386 (89.56)	25 (5.80)	20 (4.64)	246 (61.50)	103 (25.75)	51 (12.75)	91.05***
문화 프로그램	354 (82.13)	41 (9.51)	36 (8.35)	146 (36.59)	201 (50.38)	52 (13.03)	194.28** *
공동육아	367 (85.15)	36 (8.35)	28 (6.50)	170 (42.50)	179 (44.75)	51 (12.75)	173.16**

나눔터							*
가족 사례관리	398 (92.34)	23 (5.34)	10 (2.32)	299 (75.13)	73 (18.34)	26 (6.53)	45.9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01 (93.04)	23 (5.34)	7 (1.62)	323 (80.95)	62 (15.54)	14 (3.51)	27.44***
아이돌봄 지원사업	386 (89.56)	24 (5.57)	21 (4.87)	301 (75.25)	68 (17.00)	31 (7.75)	32.37***

\*\*\* $p < .001$

조사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프로그램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표 6-66>와 같이 나타났다. 센터 비이용자보다는 이용자의 경우, 제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여긴 프로그램 중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M=4.46)’와 ‘노후준비계획지원서비스(M=4.45)’의 평균이 가장 높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돌봄자 지원과 노후준비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센터 비이용자들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족돌봄자 지원(M=3.97)’, ‘노후준비계획지원(M=3.93)’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재난상황의 가족돌봄서비스(M=3.87)’, ‘아이돌봄서비스(M=3.86)’의 요구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돌봄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66> 가족서비스 수요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i>t</i>
	M	SD	M	SD	M(SD)	
교육 프로그램(131)	3.72	1.06	4.31	0.88	4.01 (1.02)	-8.82***

상담 프로그램(132)	3.81	1.09	4.37	0.87	4.08 (1.03)	-8.12***
문화 프로그램(33)	3.59	1.00	4.39	0.84	3.98 (1.01)	-1.43***
공동육아나눔터(34)	3.61	1.05	4.32	0.88	3.95 (1.03)	-10.53** *
가족사례관리(35)	3.58	1.06	4.32	0.86	3.94 (1.04)	-11.08**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36)	3.45	1.14	4.11	1.06	3.77 (3.69)	-8.55***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37)	3.86	1.15	4.43	0.85	4.13 (1.05)	-8.16***
노후준비계획 지원서비스(38)	3.93	1.01	4.45	0.77	4.18 (0.94)	-8.22***
1인가구 지원서비스 (39)	3.69	1.12	4.04	1.08	3.86 (1.11)	-4.65***
재난상황의 가족돌봄 서비스(40)	3.87	1.07	4.33	0.88	4.09 (1.01)	-6.76***
가족돌봄자 지원 서비스(41)	3.97	1.17	4.46	0.86	4.21 (1.06)	-6.76***
양육비지원 및 면접교섭지원(42)	3.49	1.17	4.18	0.97	3.82 (1.13)	-9.21***

\*\*\*  $p < .001$

## 9) 가족행복감과 가정의 건강성

응답자와 응답자 가정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개인 행복감은 평균 3.60점, 가정의 행복감은 평균 3.65점으로 비슷하였으며, 개인의 스트레스

는 평균 3.17점, 가정의 스트레스는 평균 2.86점으로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가정이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고 지각하였다. 집단별로 비교하면, 행복감은 센터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가 더 높게 인식한 반면, 부정적 정서인 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6-67> 행복감,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M(SD)	t
	M	SD	M	SD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3.48	0.82	3.74	0.84	3.60 (0.84)	-4.49** *
우리 가족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3.52	0.83	3.80	0.76	3.65 (0.81)	-5.01** *
최근 30일 동안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3.16	1.11	3.18	1.04	3.17 (1.08)	-0.24
최근 30일 동안 우리 가족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2.83	0.95	2.90	0.93	2.86 (0.94)	-1.13

\*\*\*  $p < .001$

1~10점 범위로 조사한 가정의 건강성은 평균 6.78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센터 비이용자의 평균(6.56점)보다 이용자의 평균(7.02점) 점수가 약간 더 높았다.

<표 6-68> 가정의 건강성

	센터 비이용자		센터 이용자		전체	<i>t</i>
	M	SD	M	SD	M(SD)	
전체	6.56	1.75	7.02	1.80	6.78 (1.79)	-3.68***

\*\*\*  $p < .001$



# VII

## 결론 및 제언



## 1) 시범조사 결과 요약 및 함의점

### (1) 시범조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로 시행한 시범조사를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와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체적 건강

먼저 응답자 및 응답자 가족의 건강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은 ‘보통’ 과 ‘건강한 편이다’ 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고,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 여부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갖고 있는 장애나 증상의 심각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센터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장애나 증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센터보다는 요양원, 병원 등 타 기관에 대한 요구나 선호가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가족돌봄

‘가족돌봄’ 영역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센터 이용자 집단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여부는 센터 이용의 주된 동기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돌봄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 돌봄자의

부제 또는 주 돌봄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 자녀돌봄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들은 이용자들에 비해 ‘자녀 지도’, 그리고 ‘자녀 적응 문제’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경우, 손자녀 돌봄 여부나 향후 돌봄을 지속할 의사에 있어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자녀와 노부모가 상호 교류하는 수준에 있어 두 집단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는 비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노부모 부양이나 자녀 양육’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는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향후 자녀, 손주, 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의 요구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령화로 인해 세대 관계가 길어지면서 세대 간 상호 돌봄과 교류가 중요한 가족 특성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과 교류가 없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은 일차적 안전망을 대신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족서비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센터 이용의 주된 동기 중 하나로 자녀 여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 이용자들이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센터의 우선 사업을 선정할 때,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갖는 자녀돌봄 지원의 요구를 잘 파악하여 맞춤형의 돌봄서비스를 기획 및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 ③ 가족생활

‘가족생활’ 영역을 살펴보면, ‘가족 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소식 공유, 게임, 쇼핑, 커뮤니티 이용 등’에 있어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가족과 교류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 관

리'에 있어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고, '향후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보다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었다.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 수준'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인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센터 이용자 집단은 '전년 대비 지출이 더 크다'고 답하였고,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전년 대비 수입이 더 크다'고 답하였다. 가정생활설계와 관련하여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에 대한 계획과 실천 두 가지 모두에 있어 응답자들은 '보통'을 웃도는 수준을 보였고,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이용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제 및 재무 관리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가족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호작용, 재무관리 활동이 이미 활발해졌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센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모두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평일과 휴일에 하는 가족여가활동에 두 집단 간에 특기할 만한 차이점은 없었고, 가족여가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두 집단 모두 '시간 부족', '경제적 부족', '체력 부족'을 꼽았다. 가족여가가 갖는 의미로는 두 집단 모두 '가족의 친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센터 이용자 집단에 비해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뿐 아니라 '향후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더 높았다. 관계의 친밀성 측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선호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여가의 다양성 증진 및 반려동물 키우기 측면에서 센터 서비스를 신규 개발할 여지가 있다.

노후에 누구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과 실천 정도는 ‘보통’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고, 센터 비이용자에 비해 이용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후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의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모델과 지원이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부부관계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정생활설계와 관련된 합의점을 연계시켜 본다면,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가정생활설계 및 생애설계 상담과 교육 등 센터 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전 생애에 걸쳐 백세시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가족관계

‘가족관계’ 영역을 살펴보면, 센터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이용자 집단은 가족 간 상호지지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로, 이용자 집단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간 친밀감, 배우자와의 하루 대화시간 등에 있어서는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혼 부부들의 갈등 정도와 요인,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두 집단 모두에 있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서비스 경험을 살펴본 이후의 문항에서 나타난 결과, 즉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센터 이용자가 61.50%, ‘가족사례관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센터 이용자가 75.13%에 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좋은 부모상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질문한 문항에 있어 응답자들은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를 좋은 부모 1순위로 꼽았고, 2순위 답변에 있어서는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센터 비이용자 집단의 경우 1순위와 동일한 부모상이 2순위에서도 많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센터 이용자 집단에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녀와 하루 평균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녀와 의견 충돌 경험 여부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령기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살펴보면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문제’와 ‘교육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응답에 있어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친밀감이나 소통, 시간 공유에 주어지고 있으나, 실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유 시간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부모상과 관련하여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1순위로 나타난 점은 앞으로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에서 어떤 내용을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생애주기가족발달관점을 고려할 때, 긴 생애를 사는 동안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 내용을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⑤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 영역의 문항들은 크게 결혼 및 출산, 가족의례, 성역할, 부모의 책임, 자녀의 가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 문항들 중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비혼, 독신과 즐혼’에 대한 것으로 센터 이용자 집단의 태도가 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었다. ‘가족의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가족이 함께 휴가나 여행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통적 의례인 ‘제사, 명절에 가족이 다함께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이 함께 휴가나 여행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있어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고, 기타의 가족의례 관련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서는 남성의 가족부양 책임에 대해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남성의 부양 및 여성의 가사 책임 등 전통적 성역할에 있어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부양 책임’에 대해서는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이용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자녀의 가치’에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정서적, 경제적 가치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이용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이용자 집단에 비해 보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가치관의 여러 측면을 살펴볼 때, 제사, 명절과 같은 전통적 의례보다 생일, 휴가 등과 같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적 의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통적 성역할이나 가족가치관보다 가족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가족에 관한 규범적 접근보다 개방적 접근이 필요하며, 센터 사업과 서비스를 적용할 때 가족 범위와 경계에 대한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가족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정책과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수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⑥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센터 이용자 집단의 경우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웃과의 교류’ 또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시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자

원봉사, 후원, 기부 등 활동’에 있어서도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주거환경 편의성’과 ‘안전’에 대해 센터 이용자 집단은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특히 노년기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과 실제 참여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지역사회에 관한 일상적 관심과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때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균형적인 삶을 위한 제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센터 역시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참여나 이웃과의 교류, 공동체 활동 등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 ⑦ 가족서비스 수요

‘가족서비스 수요’와 관련하여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센터 비이용자 집단이 이용자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족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있어,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80-90%가 넘는 비율이 경험한 적 없다고 하였고, 이용자 집단은 ‘교육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 순으로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자 집단 중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0% 내외였다.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아이돌봄’, ‘가족돌봄자 지원’, ‘노후준비계획’, ‘1인가구 지원서비스’ 등 세부적인 가족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 두 집단 모두에 있어 ‘가족돌봄자 지원’, ‘재난상황 가족돌봄’, ‘아이돌봄’ 등 전반적으로 돌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돌봄에 있어 갑작스런 주 돌봄자 부재 등 긴급 상황에서 주로 가족이 돌보거나 자녀 혼자 지

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 또 센터 이용자의 경우에는 비이용자와 비교할 때 노부모 부양,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와 상호 도움을 주고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섬세한 돌봄 관련 서비스 기획과 제공이 필요하다.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비교할 때, 이용자들은 가족관계, 개방적 가족가치관, 지역사회 참여 등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특성을 보인다.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센터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안내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센터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센터 이용이 가져오는 강점과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특히 센터 비이용자들이 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⑧ 가족행복감과 가정의 건강성

‘가족 행복감 및 가정의 건강성’ 과 관련해, 행복감은 센터 비이용자보다 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 가정의 건강성을 살펴보면 ‘보통’ 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나 재무관리, 노후설계와 실천 등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센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 어려움’, ‘가족과의 교류’, ‘가족갈등’, ‘지역사회 참여’ 나 ‘가족의 건강성’ 등에 있어 센터 이용자 집단은 더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가치관에 있어서도 센터 비이용자 집단은 이용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센터 이용이 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

여한다는 점을 여러 모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들이 그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가능했던 결과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각 지역별로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다양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달성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중앙 단위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기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관련 트렌드와 수요를 포착하고 이를 시의 적절하게 사업에 반영하는 유연함 또한 갖추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업 보완과 기획을 위한 보다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근거 기반 서비스의 제안과 실행을 통해 한국의 가족서비스 또한 활성화의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의 해석에 있어, 표집된 센터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상이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센터 이용자 집단의 경우 ‘여성’이 응답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 연령 분포에 있어서도 비이용자 집단은 각 연령대별 유사한 비율로 표집되었으나 이용자 집단은 ‘30-40대’ 응답자가 80% 넘게 차지하고 있다. 혼인 상태에 있어 이용자 집단의 경우 ‘기혼’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에 있어 비이용자 집단은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이용자 집단은 ‘300-400만 원’, ‘400-500만 원’, ‘200-300만 원’ 순으로 나타났고, ‘9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비이용자 집단은 12.53%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 비이용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여유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통제하지 않고 실시하는 평균차 검정, 카이 검정 등의 통계적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것이므로 비이용자와 이용자 집단 간의 차이의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 2) 사업/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이용한 시범조사에서 이용자집단의 가족생활 특성을 토대로 하여 현재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향후 신규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내용을 연계하여 <표 7-1> ~ <표 7-5>과 같이 제시하였다. 7개 영역을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한 결과, 가족건강,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사회영역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 가족가치관 영역 역시 부분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신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시범조사에서 이용자 가족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사업과 프로그램은 센터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이 많고 다양성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형태의 가족이 하나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 가족센터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서는 가족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가족이 갖고 있는 건강성 증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시범조사 결과가 센터의 사업 방향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근거로서의 이용자 가족생활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자료가 없었던 것에 비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기존 프로그램을 평가 및 재고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표 7-1>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1(가족건강, 가족돌봄)

영역	이용자집단 실태조사결과	연계 가능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제안
가족 건강	- 주관적 건강 수준은 양호하나 '건강한 편'에 이르지 못하는 못함		- 가족건강 증진 프로그램 - 현행 프로그램 확대 운영(지역체육회 협조 등) 및 다양화 방안 모색
	- 센터 이용자의 약 15%가 장애, 질환으로 인해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다고 응답 -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의 질환의 심각성은 '보통' 수준	- 가족역량강화 지원	-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 찾아가는 서비스 병행, 장애나 질환을 가진 가족원 돌봄자를 대상 신체,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가족 돌봄	- 자녀돌봄 만족도는 '보통' - 자녀돌봄은 가족 돌봄 다수 - 자녀돌봄의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 신체·심리적 문제 > 자녀지도 어려움 > 시간관리 및 일생활 균형 어려움 순 - 성인자녀와 부모 간 교류는 정서 도움, 경제적 도움, 부양 또는 양육 도움, 일상생활 도움 순	- 부모교육 프로그램 - 가족역량강화 지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 가족친화 프로그램	- 양육 부모 건강 증진 프로그램 -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증진, 정서 지원 프로그램

<표 7-2>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2(가족생활①)

영역	이용자집단 실태조사결과	연계 가능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제안
가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간 온라인 교류영역에서 비이용자집단에 비해 SNS,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등 높은 활용도 수준</li> <li>-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세대 간 소통 증진을 위한 방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간 온라인 소통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li> <li>-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li> <li>- 가족 SNS 활용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li> <li>-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홍보 프로그램</li> <li>- 가족의 건강한 게임 문화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분담 공정성 인식은 '보통'보다 다소 낮은 수준</li> <li>- 가족 간 공평한 가사분담을 위한 방안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 역할 지원</li> <li>-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가정의 평등한 돌봄을 통한 워라밸 향상 프로그램</li> <li>- 남성의 돌봄노동역할수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li> <li>- 생애주기별 평등한 역할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경제상태 인식 '보통' 수준, 경제적 자원관리 수준 높지 않음, 부채부담 높은 편, 수입보다 더 큰 지출로 인한 불안 등</li> <li>- 합리적 가계재무관리를 위한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가계재무관리 프로그램</li> <li>- 스마트 가계부관리 프로그램</li> </ul>

<표 7-3>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3(가족생활②)

영역	이용자집단 실태조사결과	연계 가능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제안
가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가족여가는 TV/유튜브/스마트폰 시청, 외식, 산책 등</li> <li>- 적극적 가족공유여가활동 필요</li> <li>- 여가를 위한 시간 부족, 경제력 부족 등의 문제</li> <li>- 가족여가는 가족친밀감 증진의 의미</li> <li>- 가족 단위 적극적 여가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봉사단</li> <li>- 가족사랑의 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공유여가체험 활동 프로그램</li> <li>- 가족여가 사례 나누기 프로그램</li> <li>- 생활시간 관리</li> <li>-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li> <li>- 생애주기별 가족 놀이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생활설계의 계획성과 실천성은 '보통' 수준 이상</li> <li>-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속을 위한 장기 생활설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가정생활설계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에 집에서 배우자와 보내길 원함</li> <li>- 노후를 위한 준비의 계획과 실천 정도 다소 낮음</li> <li>- 고령사회를 위한 가족 단위 준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생활설계</li> <li>- 중장년기를 위한 노후준비 프로그램</li> <li>- 중장년기/노년기 부부교육, 부부상담</li> <li>- 노년기 여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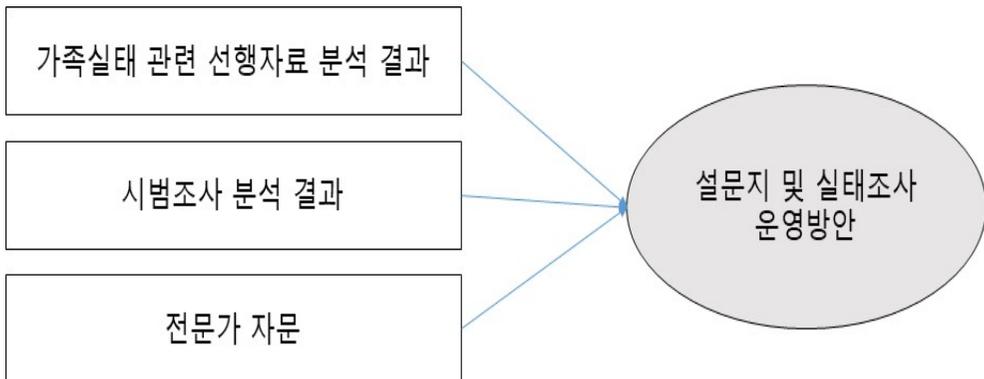
<표 7-4>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4(가족관계, 가족가치관)

영역	이용자집단 실태조사결과	연계 가능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제안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간 상호지지 높음</li> <li>-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높음</li> <li>- 부부갈등 있음</li> <li>- 부부갈등 원인은 성격차이, 가치관, 생활습관 차이</li> <li>- 부부갈등 해결은 대화, 침묵이 많으며, 전문가 도움 받는 비율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영역</li> <li>- 부모교육</li> <li>- 가족사랑의 날</li> <li>- 다문화가족교류</li> <li>- 소통공간 운영</li> <li>- 가족상담(부부상담, 부모자녀관계 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전체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li> <li>- 건강한 부부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li> <li>- 관계 강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li> </ul>
가족 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자발적 무자녀, 출혼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li> <li>- 제사, 명절보다 가족 여행, 휴가, 생일 등의 의례를 더 중시</li> <li>- 공정한 역할분담 태도 높음</li> <li>- 형제자매 필요성 동의 높음</li> <li>- 성인자녀의 독립 동의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li> <li>-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관련 프로그램 개발</li> <li>- 무자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li> <li>- 중장년기 부부관계 유지 및 관리 프로그램</li> <li>- 가족 여가(여행 등) 프로그램</li> <li>- 다자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li> <li>- 외동이 가족 간 품앗이 프로그램</li> <li>- 성인기 자녀 독립을 위한 부모-자녀 프로그램</li> </ul>

<표 7-5> 이용자집단 가족생활실태와 프로그램 연계 5(지역사회참여, 가족서비스 수요)

영역	이용자집단 실태조사결과	연계 가능 가족센터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제안
지역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참여, 이웃과의 교류 등에서 '보통' 수준 이상</li> <li>-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기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세대가 함께 모여, 지역사회 건강성 증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건강한 지역 만들기, 세대통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활동수준 높지 않음</li> <li>- 자원봉사활동 기회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봉사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단위별 봉사 프로그램 패키지(혼자, 여럿이, 세대가 함께, 세대별로, 가족단위로 등)</li> </ul>
가족 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인지도 낮음</li> <li>- 가족상담 전화, 다누리콜센터 인지도 낮음</li> <li>- 기존 가족센터 프로그램 요구도 높음</li> <li>- 가족돌봄, 노후준비계획 지원 프로그램 수요 매우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채널</li> <li>- 가족돌봄자지원 프로그램(재난상황 포함)</li> <li>- 노후설계 프로그램</li> </ul>

앞에서는 한국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한 과정 그리고 시범조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 아래에서는, 시범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 과정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의 결과들,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및 결과를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 및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7-1〉 설문지 및 실태조사 운영방안

이러한 제안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하여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조사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설문지 구성 그리고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식을 최종 확정할 때 항목별로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지 구성과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 즉 설문지의 분량, 실태조사 참여자 수,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통계분석, 홍보 등 주요 요소들은 예산의 제한 속에서 이뤄진다. 그런 점에서, 한국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파악하여 현장(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사업 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용자 맞춤형의 건강가정/가족사업을 설계하여 제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강조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몇 가지 소주제로 구분하여 설문지 및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의 전반적 운영방안 제안

### (1) 조사주기

이 연구에서는 선행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여러 실태조사는 3년 주기가 많았는데, 한국 가족의 역동적 변화 그리고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년 주기가 적당하다는 제안이다. 조사의 주기가 짧을수록 조사비용과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고 전제할 때,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직접 설문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설문 참여자 모집의 수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현장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가정/가족사업의 틀에 따라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때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2년 주기 실태조사를 제안한다.

## (2) 조사방법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태조사는 대면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방식의 운영에 익숙해진 측면 그리고 투입되는 자원의 경감 측면에서 온라인 조사방식이 갖는 강점이 강조된다.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시간 그리고 관리 등의 차원에서 온라인 조사의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집 과정에서 다양한 가구 형태가 포함될 수 있는 조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조사에 익숙지 않은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 집단이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항 중 ‘해당없음’에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등 세밀한 부분에서 온라인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에서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조사참여자

한국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포착하고 현장의 사업을 기획한다는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 가족의 특성 중 부각되는 다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문 참여자는 다양한 모든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참여자 중 다양한 연령대가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비혼 1인 가구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센터 이용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데, 가족 변화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 연구에서 실시한 시범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대상 특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남성을 일정 비율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조사참여자(인원)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조사결과의 효용성은 향상되지만, 자원의 제약을 또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는 최소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령대(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 100명), 미(비)혼/기혼집단, 거주지역(도시/농어촌) 집단별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1,600명( $400 \times 2 \times 2$ ) 이상 조사를 제안한다. 이 규모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역센터 약 200개소에서 각 8명 정도 조사하는 것이므로 센터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한 할당은 지역별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조사 중 탈락 비율을 고려하여 실제 센터에서 응답자를 모집할 때는 20% 이상을 초과하여 각 10명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장한다.

#### (5)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조사에 참여한 인원, 조사방법,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온라인 조사를 전제로 할 경우 10~14일 이내로 제안한다. 외부조사 업체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따라 조사기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 분석과 비교에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설정 시 매 조사마다 조사 시점을 동일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6) 홍보방법

실태조사의 홍보는 단순히 참여자 모집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태조사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실태조사에 관심을 갖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가족정책에 대한 체감성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실태조사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여성가족부 사이트, SNS 채널, 온라인조사업체 패널, 유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2) 실태조사 대상자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 중심 조사 방식에 대한 제안

실태조사에서 센터 이용자 그리고 비이용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혹은 센터 이용자만 포함할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포함할 경우, 한국 가족의 현상과 변화의 모습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센터 비이용자의 욕구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센터 이용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조사에 투입되는 자원의 부담이 커진다는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센터 이용자만 조사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집단의 실태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현재 제공되는 사업의 수정과 보완, 개선의 방안을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 모집과 조사, 분석 등에서 비용 절감의 강점이 있다. 그러나 비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센터 이용자 확대의 방안 도출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이와 같이 각 경우의 강점과 한계, 시범조사 분석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센터 이용자 중심의 설문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적용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할 때 센터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시범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의 함의점에 대한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우선은 센

터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기타 변수와 조건을 동일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설문조사의 결과 비교가 갖는 유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이미 여러 조사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센터 이용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장 사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효율성을 더 높힐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여러 조사들이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실시되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센터 이용자로 한정하여 특화된 조사를 할 수 있는 강점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조사참여자 모집, 조사, 분석, 관리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센터 이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센터 이용자 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센터 이용자만 조사에 포함할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비교적 동질적 대상의 생활현상과 변화를 분석하게 되므로,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을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가족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현상과 변화 속에서 센터 이용자의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해석과 제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센터 이용자만 조사 대상자로 할 경우, 비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따라서 센터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보는 도출하기가 힘들다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이용자에 대한 센터사업 홍보, 비이용자의 욕구 파악, 센터(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강화의 방안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그레이드 된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전국 단위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이용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현

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 만족도 등에 국한되지 말고 이에 더하여 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서비스,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피드백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3) 조사 운영 관련 기타 제안

그 외 추가적으로 질문지 구성과 관련된 제안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설문지는 한국 가족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를 가족서비스 수요와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볼 때 무자녀가족의 증가, 1인 가구의 보편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기간의 단축 등과 같은 역동성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설문지 구성이 핵심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지가 사용될 때, 현장을 이용하는 가족의 실제 모습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설문 내용에 함께 사는 가족의 수,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반려동물 포함 여부, 혈연가족과 비혈연가족 포함 여부 등을 표기할 수 있는 문항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4)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 (1)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이용가족의 트렌드 제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건강가족적 관점, 생태체계관점, 생애주기가족발달관점, 삶의 균형 관점 등 한국 가족의 현상과 변화를 포착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였으므로,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조사 시점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가족의 트렌드를 잘 포착하여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달체계 이용가족의 실태와 수요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등 추이를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설문지에 포함된 가족 관련 인식, 가족갈등, 돌봄자 등은 그 변화를 추적하여 제시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추이를 제시할 때 의미가 큰 몇 개 항목을 선별하여, 전달체계 이용가족의 주된 트렌드로 제시하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조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의 어려움이 어떻게 변하는지 포착하여 가족정책, 서비스 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체계 이용 가족의 실태와 변화에 부응하는 센터의 사업, 센터가 가족의 변화에 잘 부응하고 있다는 홍보도 동시에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주기별로 설문이 진행된다면 종단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센터 이용가족의 트렌드를 입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곧 가족정책 방향성 정립, 정책 보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2) 정책 제안의 근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한 가족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가족센터 이용자 가족의 현재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건강가정사업/가족사업에 대한 수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정의 건강성 증진 정책, 즉 가족정책 제안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는 곧 근거 중심의 정책으로 가족정책이 그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 결과 활용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정부 중심으로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와의 중복되지 않고 가족서비스 요구도 등 센터 관련한 사항에 집중한 설문지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맞춤형 가족정책 설계의 자료가 될 것이다. 즉 현장 이용자를 통해 수집한 가족생활 관련 자료에 기

반하여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의 보완점, 개선점을 판단할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 **(3) 현장 사업 평가와 개선을 위한 제안의 근거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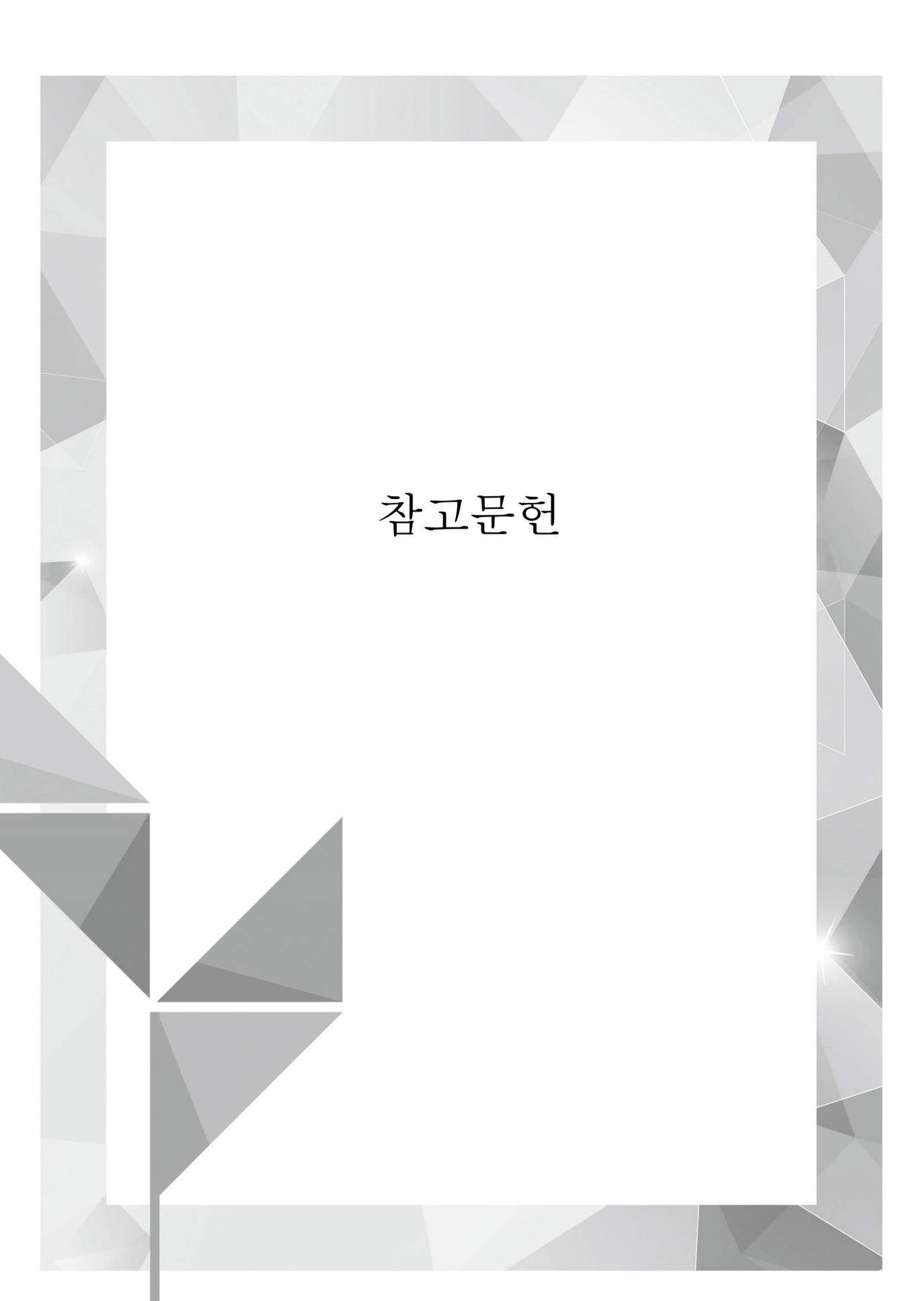
실태조사가 센터 이용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조사결과에 토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센터가 가족의 현실과 변화를 잘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의 제안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생활교육이나 부모교육이 세대 간 인식의 차이, 가족갈등의 지점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가족 관련 인식 격차 해소나 인식 개선의 방법으로 센터 사업이 유효한지, 1인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가족다양성을 실천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각 지역 센터의 차별화된 사업 기획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태조사의 결과는 현장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 다양한 가족 유형별로 어떤 서비스가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함께 부각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현장의 건강가정사업/가족사업을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 **(4) 가족 관련 실태조사/각종 연구의 방향성 제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가족생활 관련한 다른 조사들 그리고 각종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은, 실태조사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관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이때 센터 사업 평가의 기준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족변화, 가족문제 등을 실태조사 문항에 다시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 실시 중인 다른 가족 관련 조사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조사대상의 차별적 선정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조사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사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함하면서 사업의 수요를 파악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잘 이뤄진다면, 향후 가족의 현상과 변화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여러 연구들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심층적,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가족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나아가 가족 관련 주제를 계속 확장시켜 가면서 연구의 활성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김경희, 박진아, 이선호, 이태현(2021).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KWDI Brief, 60. 2022년 5월 5일 인출.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5958&no=1>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김수진, 이진숙(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20-56. 2022년 5월 4일 인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91](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91).
- 박순분(2020).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성. KWDI 이슈페이퍼. 2022년 5월 5일 인출.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5742&no=1>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해정, 송지은(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 (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호중, 정가원, 박미진, 선보영, 성경(2021).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송혜림(2022). 코로나 19로 달라진 일과 가정의 변화 :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와 전망. 2022년 춘계공동학술대회 가족자원경영학 분야 구두발표
- 여성가족부(2019).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2022년 5월 4일 인출.  
[https://www.bwf.re.kr/kor/ajax\\_json/UploadMgr/downloadRun.do?qcode=Qm9hcmQsMjlyODgsWQ==](https://www.bwf.re.kr/kor/ajax_json/UploadMgr/downloadRun.do?qcode=Qm9hcmQsMjlyODgsWQ==)
- 여성가족부(2020). 2020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2년 5월 6일 인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05)

- 여성가족부(2021a).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2년 5월 4일 인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Sn=704893](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sSn=704893)
- 여성가족부(2021b).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2년 5월 4일 인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726>.
- 이현아, 권순범(2021).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사노동 트렌드 분석 : 1990-2021년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강예은, 최준영, 송아영, 김용환(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희금 외(2018). 건강가정론. 신정출판사.
- 조희금 외(2008). 가정생활복지론. 신정.
- 주재선, 이동선, 송치선, 박건표, 이진숙, 박송이, 인연규, 양준영, 손창균(2020). 2020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미정(2020).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개발원
-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통계청(각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 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 통계청(2021). 2021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 10103호 출생통계.
-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202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포스트 코로나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2020년 제1차 온라인 가족포럼 자료집. 2022년 5월 5일 인출.  
<https://www.familynet.or.kr/download.do?uid=30baedee-fac0-4947-8a2f-de39dd01bfb6.pdf>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자료집. 2022년 10월 21일 인출.

<https://www.familynet.or.kr/download.do?uuid=d6e18949-9fc0-4bff-895d-6edb38b37987.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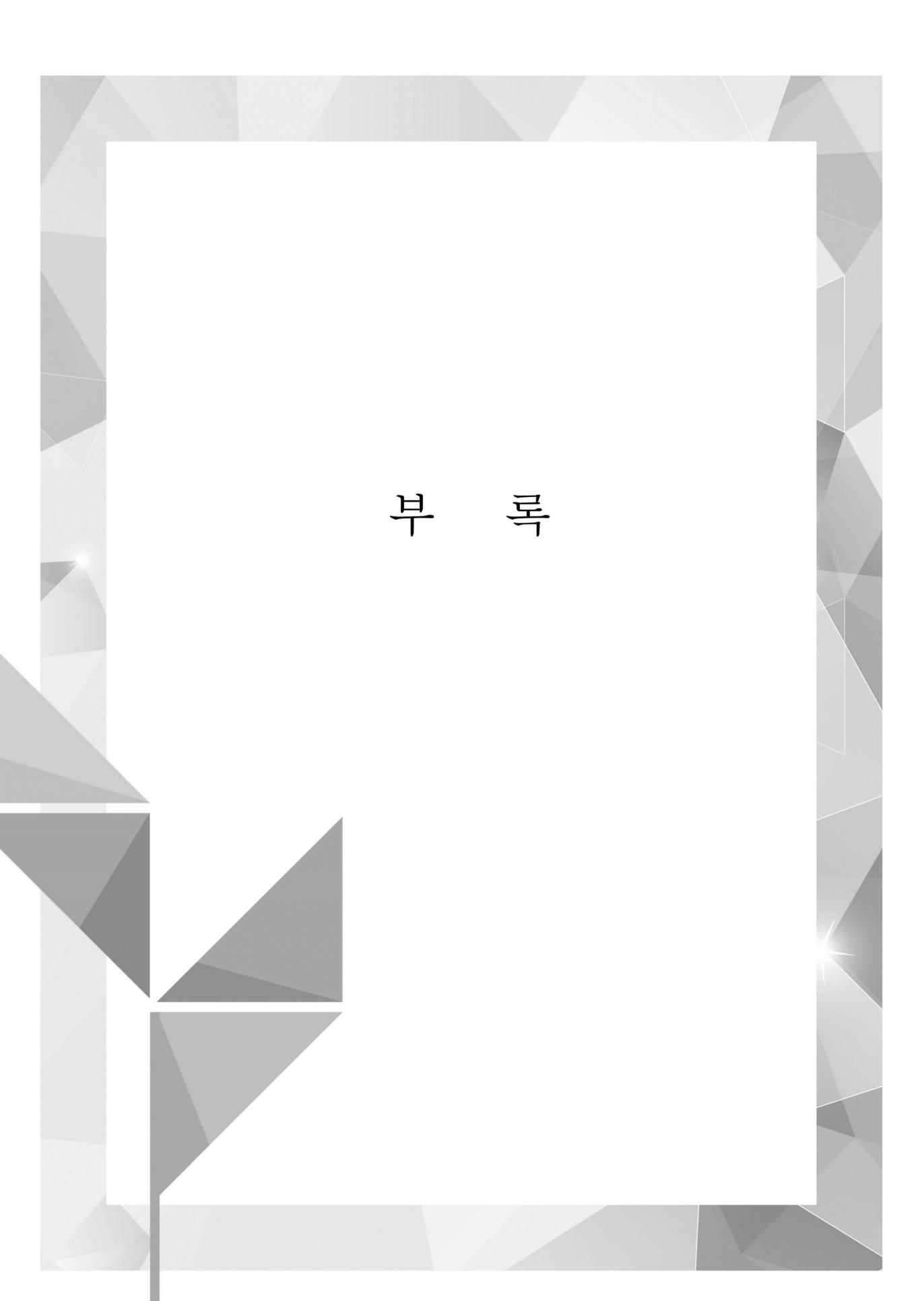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코로나19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공고. 2022년 5월 5일 인출.  
[https://www.kihf.or.kr/lay1/bbs/S1T62C65/A/5/view.do?article\\_seq=1113744&cat=&tp=1&cpage=3&rows=10&condition=&keyword=](https://www.kihf.or.kr/lay1/bbs/S1T62C65/A/5/view.do?article_seq=1113744&cat=&tp=1&cpage=3&rows=10&condition=&keyword=).
- 황남희, 김경래, 이아영, 임정미, 박신아, 김만희(2019).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n.d.) Families in Australia Survey.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aifs.gov.au/fia-survey>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 Families in Australia (Survey of).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DSSbyCollectionid/F1CCD7E D8B343ADACA256BD00028A54D?opendocument>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n.d.) Family and Community Experiences Survey.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abs.gov.au/websitedbs/d3310114.nsf/home/family+and+community+experiences+survey+-+frequently+asked+questions>
- Budinski, M., Baxter, J., Carroll, M., Hand, K. (2020). Families in Australia Survey: life during COVID-19 - report no.3.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apo.org.au/node/307658>
- Cox, D. A. (2022). Emerging trends and enduring patterns in American family life.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americansurveycenter.org/research/emerging-trends-and-enduring-patterns-in-american-family-life/>
- ICPSR (n.d.).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Series.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icpsr.umich.edu/web/ICPSR/series/193#:~:text=The%20National%20Survey%20of%20Families%20and%20Households%20\(NSFH\)%2C%20Wave,households%20within%20the%20United%20States.](https://www.icpsr.umich.edu/web/ICPSR/series/193#:~:text=The%20National%20Survey%20of%20Families%20and%20Households%20(NSFH)%2C%20Wave,households%20within%20the%20United%20States.)
- ICPSR (2013). Japan 2009 National Survey on Family and Economic Conditions (NSFEC).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icpsr.umich.edu/web/ICPSR/studies/34647>

-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n.d.). Global Health Data Exchange -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 Dataset records for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 (Malaysia).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ghdx.healthdata.org/organizations/national-population-and-family-development-board-malaysia>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opulation Sciences (n.d.)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India.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rchiips.org/nfhs/>
- MCH Data Connect (n.d.)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 (NSAF).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eb.sph.harvard.edu/mch-data-connect/results/national-survey-of-america-s-families-nsaf/#:~:text=The%20National%20Survey%20of%20America's,federal%20government%20to%20the%20states.>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d.).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cdc.gov/nchs/nsfg/index.htm>
- National Population and Family Development Board (2016). Report on key findings - Fifth Malaysian Population and Family Survey [MPFS-5] 2014.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familyrepository.lppkn.gov.my/659/1/Report%20on%20Key%20Findings%20%20Fifth%20Malaysian%20Populationand%20Family%20Survey%20%28MPFS-5%29%202014.pdf>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n.d.) Family Resource Survey.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ons.gov.uk/surveys/informationforhouseholdsandindividuals/householdandindividualsurveys/familyresourceurvey>
-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 (2022). American National Family Life Survey.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americansurveycenter.org/wp-content/uploads/2022/02/American-National-Family-Life-Survey-Topline-Questionnaire.pdf>

- UK Government (n.d.) Family Resources Survey.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amily-resources-survey-2>
- UK Government (2022). Family Resources Survey: financial year 2020 to 2021. Retrieved May 05, 2022 from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family-resources-survey-financial-year-2020-to-2021>





# 부 록



##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운영방안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현대 가족생활의 변화와 이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본 연구의 통계 작성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솔직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주관 및 조사 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본 조사에서 ‘가족’은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가족의 정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가족의 정의에 대한 다음 항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혈연관계에 상관없이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긴급하거나 필요할 때 서로 일시적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서로 장기적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서로 정서적으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쉐어하우스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혈연관계, 생계 공유 등과 상관없이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법적 혼인, 혈연관계에 있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 귀하의 신체건강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별로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6. 평소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돌봐주던 사람이 갑자기 돌봐줄 수 없는 경우**, 주로 누가 자녀를 돌보십니까?

- ① 자녀의 부                      ② 자녀의 모                      ③ 자녀의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⑤ 민간돌보미(시터)              ⑥ 아이돌보미(정부)  
 ⑦ 자녀의 형제자매              ⑧ 돌보는 사람 없이              ⑨ 기타 (                      )  
 자녀 혼자

7.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어렵지 않다	별로 어렵지 않다	보통이 다	다소 그렇다	매우 어렵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부담	①	②	③	④	⑤
공부나 학업, 생활습관(게임, 영상시청 등)과 관련된 자녀 지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생활 적응 관련 문제	①	②	③	④	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자녀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양육비/교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⑤
자녀의 양육 및 교육 관련 정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손자녀 돌봄**에 대한 문항입니다.

※ **조부모님이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경우 11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8. 돌보는 손자녀와 조부모는 현재 동거하는 가족이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의 9번과 10번 문항은 **손자녀를 직접 돌보고 계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자가 손자녀 돌봄을 하고 있는 조부모가 아닌 경우 11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9. 손자녀를 돌보는 부담감은 어떠하십니까?

-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부담스럽다    ⑤ 매우 부담스럽다

10. 향후 손자녀를 계속 돌보고자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

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부모님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주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는 편이십니까?

※ 본 문항에서의 부모님은 귀하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을 함께 의미합니다.

항목	거의 주고받지 않는 편이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편이다	부모님으로 부터 도움을 받는 편이다	비슷한 정도로 도움을 주고받는 편이다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등)	①	②	③	④
일상생활 도움(병원동행, 집안청소, 공과금처리 등)	①	②	③	④
정서적 도움(의사결정, 말벗 등)	①	②	③	④
부양 또는 양육 도움(부모돌봄, 손자녀돌봄)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하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2. 귀하는 다음의 항목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항목	전혀 하지 않는다	별로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가족과 SNS를 통해 소식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과 함께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으로 생필품, 의류 등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일상적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 간의 분담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사노동 예시: 식사준비, 세탁, 청소, 가족원 돌봄, 구매, 공공요금 내기, 쓰레기 버리기 등

※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전혀 공평하지 않다      ② 공평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공평한 편이다      ⑤ 매우 공평하다

14. 아래 항목에서 귀하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일상적인 생활비를 지출하기에 충분한 상태다	①	②	③	④	⑤
긴급한 상태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환경보호, 자원절약 등을 고려하면서 소비생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10년 후, 귀하 가정(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16. 귀하 가정의 수입과 지출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수입이 더 크다      ②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      ③ 지출이 더 크다

17. 귀하가 최근 **6개월 동안** 평일과 휴일에 **가족과 가장 자주** 한 여가활동을 **2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 이 문항에서의 가족은 함께 사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모두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평일		
휴일		

<보기>

- ① TV/유튜브/스마트폰 시청      ② 문화예술 감상(영화, 미술관 등)      ③ (온라인) 게임  
 ④ 쇼핑      ⑤ 외식      ⑥ 산책      ⑦ 스포츠활동(등산 포함)      ⑧ 스포츠경기 관람  
 ⑨ 여행      ⑩ 종교생활      ⑪ 텃밭 가꾸기      ⑫ 자원봉사활동  
 ⑬ 친구 만나기      ⑭ 기타      ⑮ 해당 없음

18. 귀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⑥ 해당없음(가족 없음)

19. 귀하가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할 때, **장애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시간이 부족하다      ② 경제적 여윌돈이 부족하다      ③ 함께 할 사람이 없다  
 ④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⑤ 정보가 부족하다      ⑥ 체력이 부족하다  
 ⑦ 하고싶은 마음이 없다      ⑧ 기타      ⑨ 해당 없다(장애 없다 포함)

20. 귀하는 가족여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의 친밀감을 위해 필요하다      ② 자발적인 기쁨이다  
 ③ 함께 하는 시간을 내기 위한 의무와 부담이다      ④ 가족여가 때문에 개인여가가 희생된다  
 ⑤ 해당없음(가족 없음)



24-1.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국민연금                      ② 공무원연금                      ③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군인, 사학연금 포함)
- ④ 퇴직금/퇴직연금              ⑤ 예금, 적금                      ⑥ 부동산 운용
- ⑦ 주식, 채권                      ⑧ 기타

25. 귀하는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십니까?

- ① 예 (☞ 2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6번으로 이동)

25-1.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동기나 이유는 아래 중 무엇이십니까?

- ① 원래 좋아해서                      ②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 ③ 가족이 원해서                      ④ 기타

26. 귀하는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26-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6-2번으로 이동)

26-1.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어서                      ② 동물을 좋아해서                      ③ 외로워서
- ④ 가족이 원해서                      ⑤ 기타

26-2.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①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②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책임감이 부담되어서                      ⑤ 가족이 반대해서                      ⑥ 기타

**다음은 귀하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7. 다음은 **가족 간 상호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의 가족들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들은 서로의 감정을 보살피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들은 서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음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 이다	대체로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해당 없다
귀하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 문항 **29번~31번**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녀**만 응답해 주십시오.

29. 다음은 **부부 간 친밀감**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헌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부부는 서로를 가깝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부부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 문항 **32번~35번**까지는 **자녀가 있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32.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부모
- ② 자녀와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부모
- ③ 자녀의 독립을 중시하는 부모(부모의 욕심과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부모)
- ④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부모
- ⑤ 성숙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모
- ⑥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
- ⑦ 가정에서 평등한 역할을 실천하는 부모

33.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귀하는 자녀와 놀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항목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다 (자녀없는 경우)
영유아기	①	②	③	④	⑤	⑥
아동기	①	②	③	④	⑤	⑥
청소년기	①	②	③	④	⑤	⑥

34. 귀하는 최근 1년간 **학령기 이상의 자녀**와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33-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34번으로 이동)
- ③ 해당 없다 (☞ 34번으로 이동)

34-1. 갈등의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써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초등학교 자녀		
청소년기 자녀		

<보기>

- ① 학교생활 문제(또래관계, 교사관계)      ② 자녀의 일상생활 문제(놀이, 취미, 시간관리 등)  
 ③ 부모와의 생활양식 차이                      ④ 교육 문제(학업 성적, 사교육, 진학 등)  
 ⑤ 정서·행동 문제(집중력, 우울감 등)      ⑥ 기타(                      )

35. **미혼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의사결정하십니까?

항목	자녀가 단독 결정	부모 자녀가 협의하여 결정	자녀 결정 후 부모에게 통보	부모 결정 후 자녀에게 통보	부모가 단독 결정	해당 없음
결혼여부 및 배우자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전공이나 직업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주거지 독립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귀하의 가족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36.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결혼할 생각 없이 임신 · 출산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미래를 위해 미리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결혼한 부부가 협의하여 줄혼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형편이 된다면 성인이 된 미혼자녀는 따로 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7.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하 지 않다	보통이 다	중요하 다	매우 중요하 다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친인척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제사를 지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생일에 가족이 모두 모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가족이 함께 휴가나 여행을 가는 것	①	②	③	④	⑤

38.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맞벌이라도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성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맞벌이라도 가사는 일차적으로 여 성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39.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이 든 부모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이 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대학생 자녀의 학비나 취업 준비 지원은 부모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가 경제적 도움이나 손자녀 돌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0.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외롭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자녀가 하나라면 아들보다 딸이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외동보다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41. 아래 항목에서 귀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사는 지역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사는 지역의 현안(투표, 축제, 특성 등)을 가족/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아래 항목에서 귀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급한 상황일 때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평소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만남, 공동구매, 대화, 친목교류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3. 아래 항목에서 귀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원봉사활동, 후원, 기부를 적극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투표,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보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귀하는 현재 주거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접근성 (공원, 문화시설, 관공서 등)	①	②	③	④	⑤
편의성 (대중교통, 마트/편의점,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안전, 치안·방법 상태 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45. 귀하는 다음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항목	전혀 모른다	이름만 들어보았다	서비스 내용을 대략 알고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①	②	③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①	②	③	④
양육비이행관리원	①	②	③	④
다누리콜센터(1577-1366)	①	②	③	④
가족상담전화(1644-6622)	①	②	③	④

46. 다음은 가족관련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이용 경험 없다	이용 경험 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센터	타 기관
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버지 교육 등)	①	②	③
상담 프로그램(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전후상담, 가족상담 등)	①	②	③
문화 프로그램(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등)	①	②	③
공동육아나눔터(공간이용, 품앗이, 장난감 대여 등)	①	②	③
가족사례관리(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긴급위기지원, 자조모임 등 통합지원)	①	②	③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등)	①	②	③
아이돌봄지원사업	①	②	③

47. 귀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래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부부교육, 아버지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상담 프로그램(부부상담, 자녀상담, 이혼전후상담, 가족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 프로그램(가족캠프, 가족체험활동, 가족봉사단 등)	①	②	③	④	⑤
공동육아나눔터(공간이용, 품앗이, 장난감 대여 등)	①	②	③	④	⑤
가족사례관리(자녀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긴급위기지원, 자조모임 등 통합지원)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가족지원사업(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취업지원, 방문서비스, 중도입국자녀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노후준비계획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인가구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재난상황(감염병, 자연재해 등)의 가족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가족돌봄지원서비스(장애아동, 치매노부모)	①	②	③	④	⑤
양육비지원 및 면접교섭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행복감 및 가족 건강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8. 다음 중 귀하 또는 귀하의 가정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다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정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최근 30일 동안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최근 30일 동안 우리 가정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9. 귀하는 귀하의 건강성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1~10점 사이에서 해당되는 점수에 응답해 주십시오.

가정의 건강성은 일상적인 의식주 및 경제생활의 안정, 가족 간 열린 대화와 소통, 가족원의 일 · 생활 균형 그리고 지역사회참여, 평등한 역할분담,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합리적 자원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강성이 매우 낮음 건강성이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4. 본인 포함하여 현재 2명 이상의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으십니까?

※ 직장동료,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② 아니오’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54-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55번으로 이동)

54-1. 함께 사는 가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                      ② 미혼자녀                      ③ 기혼자녀                      ④ 손자녀  
 ⑤ 본인(배우자) 부모                      ⑥ 형제자매                      ⑦ 기타 (                      )

55.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졸(무학, 중퇴 포함)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 졸업(전문대, 4년제 포함)                      ⑤ 대학원 이상 (재학, 수료, 중퇴, 졸업 포함)

56. 귀하의 현재 경제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다소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여유있다                      ⑤ 매우 여유있다

57. 최근 1년간 귀댁의 월평균 소득총액은 얼마이십니까?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임대료, 이자 수입,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⑩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⑪ 900만원 이상

58. 귀댁의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과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을 각각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가장 부담되는 항목 (2가지 선택)	가장 지출이 큰 항목 (2가지 선택)
9식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외식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손)자녀 사교육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거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신 및 여가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통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비지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9. 전년도 동일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귀댁의 가구소득과 지출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항목	감소했다	동일하다	증가했다	해당 없음
가구소득	①	②	③	④
가구지출	①	②	③	④

※ 이것으로 설문을 모두 마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2] 1차 자문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연구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수요조사 운영방안 기초연구**’ 를 수행 중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족생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도구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이용자 가족의 변화 추이, 그리고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를 함께 진단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에서는 건강가족 관점, 생애주기가족발달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삶의 균형 관점 등을 참고하여 설문지(초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가능한 한 큰 변동 없이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아래 사항에 대해 자문 부탁드립니다.

### 1. 조사대상

- 가족의 변화와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는 것이라,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응답자가 **가정을 대표**해서 응답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개인보다는 가족의 생활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에 미혼자를 포함하는 방안과 기혼자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간단한 이유와 함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되시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에 **1인가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부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질문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표집 크기에 따라 조사대상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분거가족** 등이 **소수로 표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분거가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설문지 구성

- 설문대상에 미혼자,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다면, 이에 **섹션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과 질문마다 조건(예 : 해당 없음)**을 넣어서 응답하게 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3. 문항 추가와 삭제

- 삭제 : 응답자의 응답 피로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문항 수를 줄이고자 할 때, 어떤 문항을 삭제해도 될지에 대하여 설문지 문항에 메모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 혹시 추가가 필요한 영역이나 각 영역 별로 추가해야 할 문항이 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설문지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제안

## 4. 조사운영 방안

- 이 연구의 목표(한국 가족의 변화 추이와 서비스 요구도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가족에 대한 분석과 진단,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를 고려하시면서, 설문지 조사 방법 및 운영방안(조사주기, 통계분석,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 아래 설문지를 보시고, 세부적 표현 등에 대해 문항에 메모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2차 자문 요청서

가족생활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운영방안 기초연구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 기간	조사대상	조사 규모	영역	문항
한국인의 가족인식조사(2019)	한국건강 가정진흥 원	4일	20-30대 성인남녀	1,000명	5	60
2020년 한국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 (코로나 이후)	한국건강 가정진흥 원	8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100명	4	65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건강 가정진흥 원	8일	2019년 건강가정지원 센터/가족센터 이용자	1,000명	4	35
코로나 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2021)	한국건강 가정진흥 원	6일	일반 국민 및 건강가정지원 센터/가족센터 이용자	일반 국민 1,500명, 건강가정지원 센터/가족센터 이용자 1,000명	3	79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 원	3개 월	전국 일반 가구 내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민	3,018명	2	46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 원	46일	전국 50-69세 국민	4,006명	2	61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 태조사	한국보건 사회연구 원	72일	전국 일반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9,999가구, 14,538명	2	112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	11일	가구 및	전국	10	89

(2020년)	부 (한국여성 정책연구 원 위탁)		가구에 속한 12세 이상 모든 가구원	10,971가구의 12세 이상 가구원	(7)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 정책연구 원	30일	ㄷ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06가구, 12,710명	6	30
고령화연구패널조 사	한국고용 정보원 고용패널 조사팀	2020 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국민	10,254명	7	3,000
전국다문화가족실 태조사(2018년)	여성가족 부	22일	대한민국 거주 다문화가족	전국 25,053 다문화 가구	18	122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 부	5개 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구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	-9개 분야 -20 개 항목	132
2018 아동청소년 패널 (2021년도 자료)	한국청소 년정책연 구원	4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	5,197명	-대 분류 : 10 -중 분류 : 24	82

## 1. 위의 표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앞부분에 제시한 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개발 설문지와 연결된 조사들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1) 조사주기 :
- 2) 조사방법 :
- 3) 조사대상(1인 가구 포함여부 등) :

- 4) 조사인원 :
- 5) 조사기간 :
- 6) 홍보방법 :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 영역과 내용 중 센터 비이용자(일반인)과 센터 이용자 비교 조사에 대한 의견**

본 시범조사에서 비이용자와 이용자를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향후 조사 및 활용에서 두 집단 비교를 정리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지 영역과 내용 중 1인 가구에서 강조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

아래의 표는 개발된 설문지의 영역과 내용, 문항수입니다. 추가 또는 조정, 축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1) 추가 영역과 내용
- 2) 조정 영역과 내용
- 3) 축소 영역과 내용

10개 영역, 59개 문항			
영역	내용	문항 수	
가족 정의	가족에 대한 정의	1	
기본 정보	성별, 나이, 혼인 여부 및 유형, 가족 구성, 학력, 주관적 경제 상태, 월평균 소득, 지출 항목별 규모 및 부담의 정도, 가구 소득 및 지출의 변화	2	
건강	주관적 신체 건강, 간병/돌봄 필요 가구원 및 주 돌봄자	9	
가족 행복감 및 가족 건강성	행복감 및 스트레스, 가정 건강성	2	
가족 돌봄	공통	자녀 여부	1
	초등학생 이하 자녀	돌봄 상황에 대한 만족, 돌봄자, 양육 어려움	3

	손자녀	손자녀-조부모 동거 여부, 돌봄에 대한 부담감, 손자녀 돌봄 지속 의향	3
	성인 자녀	부모자녀 간 도움	1
가족생활		온라인 생활, 부부 가사분담, 가족 경제 생활, 미래 재무 상태, 수입 지출 비교, 가족여가 활동, 가족여가 만족도, 가족여가 장애요인, 가족여가의 의미, 노후 계획 및 실천, 노후 경제적 준비, 반려동물 여부 및 계획, 가족생활 계획	15
가족 관계	공통	가족원 간 상호지지, 관계 만족도	2
	부부	부부 친밀감, 부부 대화시간, 부부 갈등 여부 및 빈도, 해결방법	3
	부모자녀	좋은 부모에 대한 정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녀와의 갈등 여부 및 이유, 미혼 성인자녀와의 의사결정	4
가족가치관		결혼 및 출산, 가족행사, 성역할, 부모자녀 간 책임, 노후생활과 자녀	5
가족서비스 수요		기관/서비스 인지도,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3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 주거환경 만족도	4

#### 4. 조사연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이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 1) 가족 트렌드

분석 :

##### 2) 정책 제안의 근거 :

##### 3) 현장 사업 제안의 근거 :

##### 4) 가족 관련 실태조사/각종 연구의 방향성 제시 :

##### 5) 기타 :



##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운영방안 기초연구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 김금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21, 24층

전화 | 02-3479-7600

팩스 | 02-3479-7798

홈페이지 | [www.kihf.or.kr](http://www.kihf.or.kr)

기획·편집 | 사업기획부

수행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쇄처 | 일광사무기상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발췌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